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겸 손주영
편집장 송훈
외대신문사 (☎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 (☎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85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규행

제485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3월 22일 (화요일)

총학생회장 선거 본격돌입

총학생회장 후보에 3명 등록, 2차례 유세 가져

용인 총학생회장선거 28일(월)실시, 2명 입후보

제22대 총·부학생회장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 서울캠퍼스에서 2차례의 유세를 가졌으며 제9대 용인캠퍼스 총·부학생회장선거는 2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3월 28일(월) 실시된다.

총·부학생회장에 임후보한 3명의 후보는 16일(수) 기호추첨을 실시, 기호1번에 총학생회장후보에 이수한준(서양·서반아어4) 부총학생회장 김형진준(동양·태국어4), 기호2번에 함필성준(법·법학4) 김용덕준(서양·영어3), 기호3번은 조원재준(서양·영어4) 김용한준(서양·불어4)으로 결정되었다.

이들 후보자들은 지난18일(금) 오후2시 삼민광장에서 서울캠퍼스 1차유세를, 21일(월) 오후7시에는 대강당에서 아간강좌유세를가졌다. 또한 22일(화) 오후2시 용인캠퍼스 학생회관앞에서 3차유세를 가질예정이다.

한편, 각단과대학 학생회장과 과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임원들의 불참등의 문제로 선관위상임위원회 (7명)를 구성, 선거시행의 결정권을 행사하고있다.

또한, 제9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는 오는 3월28일 (월) 실시되며 지난 18일 (금) 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쳐, 기호1번에 총학생회장 정형주준 (독어3) 부총학생회장 안승남준 (경제3)과 기호2번 장철수 (노어4) 황기원준 (독어4)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21일 (월) 오후4시 학생회관 앞에서 후보자 합동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22일 (화) 오후1시 어문학관 식당과 24일 (목) 오후3시 학생회관 앞에서 선거유세를 벌인다.

현재 용인캠퍼스 선관위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단과 부장을 합쳐 10인, 총·부학생회장을 포함한 총학생회 간부 10인등 총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복지장학생 선발

24일(목) 마감, 25일(금) 지급 예정

서울캠퍼스 단과대 학생회협의회에서는 24일(목) 오후3시까지 복지장학생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자기소개서 1부와 과회장 추천서 1부를 각 단과대 학생회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무주택자, 학생자치활동 기여도, 성적등의 순이며 수혜자는 24일 오후5시에 발표되고 장학금은 추가등록마감일인 25일(금)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장학금은 토큰 수익금 1백만원, 자동판매기 입찰금 5천만원등 1, 2학기합쳐 총2백50명의 학생에게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장학금은 작년에비해 자판기 수입금이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식당은 학교직영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장학금에는 책정되지 않았다.

용인, 학생회관준공 기념행사

송건호씨 강연회등 22, 29일 개최

용인캠퍼스 써클연합회에서는 학생회관준공기념행사로 송건호씨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초청강연회와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각각 22일 (화) 오후4시, 29일 (화) 오후5시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송건호씨의 초청강연은 「한국언론의 현실」이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기념행사기간중에 왕산역사사진전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임금협상 결렬시 파업돌입

직원노조, 1백3개조항 잠정합의

본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3월14일(월) 노동부에 쟁의신고를 한후 노동부의 중재로 학교측과 복지, 인사, 근로조건등 1백3개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며 21일(월)부터는 임금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화)부터 19일(토)까지 5차례에 걸쳐 벌인 복지, 인사, 근로조건등의협상에서 노조활동인정, 노조위원장전임제가 합의되는등 노조측안에대한 수정·보완작업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노조측 한교섭위원은 『21(월)일부터 시작되는 임금부분협상에 학교측이 무성의하게임할 경우 22일(화)노조임원들의 철야농성과 24일(목) 전면적인 파업도 배제할수 없다』고 강력히 노조측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원들은 15일 일 (화) 부터 서울캠퍼스는 본관앞, 용인캠퍼스는 어문학관앞에서 매일 정오에 집결, 10여분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타지 못하면 지각이다』 『다음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다음 차라 해도 편히 타고 갈 가능성은 없다』

밑고 당기는 「통학전쟁」이 매일 잠실, 성남과 용인캠퍼스의 버스정류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송차정원 2배 이상의 콩나물통학버스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안전사고의 위험등이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3월21일 (월) 오전 8시경 잠실)

<글·사진 윤덕주기자>

용인 기숙사 3월말 착공

▲용인캠퍼스 2차 기숙사신축공사일정및 조감도 (사진)가 완성되어 88년 3월말 착공에 들어간다.

건설과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축되는 기숙사는 89년 2월29일에완공되며 1천4백36평에 지상4층으로, 여학생기숙사로의 사용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또한 1백8개의 룸에 4백32명을 수용할수 있으며 휴게실, 실내탁구장, 독서실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재단, 공개질의서답변 무성의

단대협의회, 4개항 재답변 요구

동원재단은지난3월17일(목) 서울캠퍼스 단과대 학생협의회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으나 단과대학생협의회는 답변내용이 무성의하다는이유로 21일 (월) 까지 재단수익사업을제외한 4개항의 재답변을요구했다.

이는 단과대 학생회협의회에서지난2월24일(수)부채내역공개, 세곡동부동산 공개입찰, 동원재단의 수익사업공개, 장기투자계획공개, 등록금인상근거제시등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낸것에 따른 것이다.

재단측의 답변내용을보면 세곡동부동산 공개입찰의 요구에 대해서는 『헐값으로 공매한다는 것은 학교의 명예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 공개입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부채에 대한 이자는 재단측에서 부담할수 있으나 원금은 부담할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인상이유에 대해서 재단측은 문교부에서 시달된 「학생납입금 책정기준」에 의한것이라고 밝히고 재단수익사업은 동원농산주식회사라는 사업체로 직원27명에 젖소1백10두, 초지조성 85만평, 조림사업 5백50만평 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외대 장단기발전계획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성태교수)에서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경대 학생회장 김태규준 (무역4)은 『부채의 원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재단의 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장·단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의 계획이 전적으로 받아져야 될것』이라며 재단측의 재답변을 요구했다.

김동호동문

태국어과에장학금기증

태국어과 동문회 (회장 김동호·2회졸업)에서는 지난 3월9일 (수) 장학금 1천만원을 태국어과에 기증했다.

태국어과창설 20주년기념으로 동문들에의해 모아진 이번 장학금은 매학기 30만원씩 2명의 학생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앵글스」신인전

서울캠퍼스 사진반 「ANGLES」에서는 3월28일 (월)부터 30일 (수) 까지 학생회관1층 전시실에서 제9회 신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2학년학생들의 작품 40여점으로 전시되는데 3월24일 (목) 부터 26일 (토) 까지는 을지로입구 서울투자금융빌딩 10층 하늘공원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한다.

서울, 써·연주최 써클소개 한마당

서울캠퍼스 써클연합회에서는 3월21일 (월) 부터 23일 (수)까지 「써클소개 한마당」을 상집탑과 본수대에서 개최한다.

신입생들에게 써클을 소개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40여개 써클이 참가해 장비전시및 공연, 써클상담 등을 하게 된다.

서울, 써클등록 23일(수)까지

서울캠퍼스 써클연합회 (이하 써·연) 에서는 3월23일 (수) 까지 써클등록을받는다.

모든 써클은 이기간동안써·연사무실 (학생회관3층) 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등록원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심사는 3월25일 (금) 오후5시 대학원(6104)에서 열리게될 써클대표자회의에서 하게된다.

한스

▲검찰, 새마을본부 전면 수사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불만하겠군

▲민정 (民正), 공천혁명 (?) 자처

—글쎄, 집안싸움도 혁명인가

▲총학생회장 선거 며칠 앞으로 다가와

—애국외대 이끌 인물은 내손으로

87학년도 후기졸업 예정자

졸업논문제출및 시험일정 확정

87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의 졸업시험및 졸업논문제출 일정이 확정·발표되었다.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서양·서양어문대 (불어과 제외), 동양·동양어문대, 사범대(영교·독교과), 문리과대 (수학·전산·물리학과) 졸업예정자들은 3월21일 (월) 부터 25일(금)까지 각과 학과장실에서 배부하는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졸업시험은 4월8일 (금) 일반교과목 (필수선택), 9일 (토) (용인캠퍼스는 11일 (월))언어실습및 회화로나눠 실시된다.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정책과학대, 법대, 상경대, 사범대 (불교·한교과), 사회과학대문리과대(철학·사학·화학과), 서양·서양어문대 불어과 졸업예정자들은 4월26일 (화) 까지 해당 학과장실에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88학년도 전기졸업예정자중 졸업논문을 제출하게되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들은 학과장실에서 졸업논문제출계획서를 배부받아 3월30일 (수) 까지 제출해야한다.

부정(否定)의 아이러니

▲지난7년의 역사속에서 제5공화국의 출현에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부정 (否定) 하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없다.

그것이비록 암울하고 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역사였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했던 사실을 부정 할수는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금권·관권선거로 부정 (不正) 을 자행하고 집권한 노태우정권의 민주대화합과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권력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은 새로운 환상을 심어주려는 정치적 술책이라 아니 할수 없다.

▲7년독재의권력남용으로 치외법권 (治外法權)적 비행을 저지른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때 그것이 곧 본질적 변화라 착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전 (全) 정권과의 차별성이 단순한 숫자의 자리바꿈으로해서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4만평의 국유지를 무상입대받고 공유수면 8백88평을 매립허가없이 묻어버린 영종도 사건, 88억원의 예산을 유용했다는 「새마을신문」, 32억원의 국고지원이 이어졌다는 월간 「새마을」, 7억여원의 성금을 낭비한 중고화물선사건등등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새마을 중앙본부의 부정은 이미 도덕적인 비난이나 행정적 제재만으로 다스려질 사안은 아니다.

또한 새마을운동본부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임자를 부정하는 논리는 노정권 자신이 부정 (否定) 당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자가당착의 논리로 선뜻 새마을운동본부의 비리를 파헤치기는 힘들것이다.

▲「청와대의 닥자가 원닥으로 바뀌었다」 「청와대를 개방했다」 등이 민주화의 전부인양 연일 관제언론들은 떠들어대지만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요원하기만 하다. 군사정권의 연장에 불과한 6공화국이 전임자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부정 (否定)만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하지만 공화국의 숫자만을 바꾸는 피상적조치로는 결코 군사정권의 본질을 은폐시킬순 없을 것이다.

<오상윤>

진리·평화·창조

國際化시대에 앞서가는 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제22대 총학생회선거에 부쳐

—대의(大義)를위해 분파성 극복해야

제22대 총·부학생회장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기호추첨이 끝나선거 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미 마무리 되었고, 몇차례의 유세와 공개토론회를 제외하면 29일 투표실시만을 남겨 놓고 있는 셈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우린 지난 21대 총학생회의 과오와 분열을 다시한번 돌쳐내야 할 것 같다.

물론 21대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특정 입개인에게 돌려질수만은 없다. 하나 분명 21대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축으로한 자치기구 건설보단 총학생회라는 지도조직내부의 개인적 또는 분파적 주도권 경쟁에 너무도 많은 힘을 소모했다. 총학생회장이 학생대중도 모르는 사이 지도부에 의해 불신임, 탄핵 대상이 되었고, 삼민광장에선 「뽁라(?)」운위하는 해프닝연출도 우린 눈뜨고 빠야했다.

84년. 정부의 이른바 「자율화 조치」는 총학생회의 부활움직임을 당위로 이끌었다. 그해 11월, 실로 5년만에 학도호국단 체제의 탈을 벗고 외대에서도 19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치뤄졌다. 또다시 그로부터 4년.

이제는 총학생회의 위상이 안일하게 「자치기구」「자율조직」차원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 스스로 소극적이고 이혜적 측면에서 학생회를 평가하기엔 학내외에서 요구하는 총학의 주체적역할은 너무도 막중하다. 그렇기때문에 입박한 선거날짜 앞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못지않게 더욱 긴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총학생회 부활 4년. 그간 총학을 구심점으로 하는 대학인의 협동반경은 그만큼 확장되었고 뿌혓한 목적의식적 실천의지 또한 크고 작게 결집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총학의 무힘체한 대중추수주의로 흘렀고 면면해야할 총학의 맥은 지극히 단절적이었다해도 표현의 과(過)함을 느끼지 않는다.

여하튼 새로 출범하게될 22대 총학에 당부코자하는 말은 단하나 백번강조해도 부족한「대동단결」의 원칙이다.

우선 각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사사로운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야심을 일순간이라도 접었다면 과감히 내던져야한다. 돌체로, 지난 단대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불미한 부정시비 전철을 밟지않으려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펴나가길 당부한다. 세째, 책임성있는 공약의 제시와 스스로의 다짐이다. 후보자들의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즐절된 사고가 없으리라 믿고 싶다. 그리고 본파성을 극소화 시켜야한다. 어려운 세상, 소의(小義)를 위해 대의(大義)를 희생시킬수는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만이천 외대학우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때 「투표율 32.5%」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의 무관심이 총학의 혼란을 부채질하지나 않았는가 뼈저린 반성을 잊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한국 경제민주화의 과제와 방향

배 손 근
〈고대경제학과교수〉

Ⅰ. 한국경제의 논리와 불평등 구조

1. 한국경제의 자본 축적논리

우리시대의 모든 것이 통일에 귀일된다면 당면의 모든 것은 민주화에 귀일된다. 해방이후 40여년에 걸쳐 누적된 비민주적, 반민주적 적폐를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굳히는것이 당면의 최대과제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정책기조는 시장원리보다는 계획·통제원리를 중심으로, 정치보다는 협정 내지 관주도보 일관돼왔고,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굴림되어왔다. 공업화위주의 불균형성장정책으로 농업이 희생되었으며,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주도형정책으로 대외종속성이 심화되고 내수산업이 희생되었다.

또한 외자와존 및 독과점대기업중심의 자본형성으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농민 및 소비대중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외자도입과 저임금 저농산물가격, 저금리, 만성적 인플레, 독과점차별가격, 조세감면, 각종보조금과 금융특혜, 대중수탈적인 간접세(60~70%), 그리고 공해, 저복지 등 각종 부등가교환이나 차별적 특혜 및 강제저축을 통해 자본의 강저축으로 일관해옴으로써 한국경제의 자본축적 내지 고도성장의 논리는 한마디로 불평등 및 불균형을 지탱해로 해왔다. 요컨대 그것은 소득분배구조를 악화, 역부화시켜 특정인(독과점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불로소득을 줌으로써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희생으로 한 관권특혜위주의 및 신중상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로 일관해온 것이다.

2. 한국경제의 불평등 구조

먼저 소득불평등을 보면 하위40%계층의 국민소득점유율이 60년 19.3%에서 76년 16.9%, 85년 17.7%인데 비해 상위 20%계층의 그것은 각각 41.8%에서 45.1%, 40.7%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계는 부동산소득이나 주식소득등 이른바 자본이득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의 계층별 불평등은 훨씬 더 클것임에 틀림없다.

기능적 분배중 저임금을보면 제조업(종업원10인이상)의경우 지난24년(1963—86년)간 노동생산성상승률이 연평균 12.6%인데 반해 실질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7.9%에 그침으로써 적정임금(=생산성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로 시종하고 있다. 63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86년말 현재 제조업전체의 평균 적정임금이701,810원이되어야 하는데도 실제 평균임금은 294,485원밖에 되지 않아 지난 24년간 제조업근로자 1인당평균 무려2,142만원을 착취당한 셈이된다.

이같은 저임금은 제조업(10인이상 고용)의 경우 85년말 현재 아직도 월 10만원미만의 근로자가 17만9천명이나 필뿐 아니라 전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지출액(실태생계비) 월31만원미만의 근로자가 전체의64·1%인 213만명이나 되고있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가 생계에도 못미치는 기아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의 불평등은 극히 한정된 상속세신고자료를 기초로 한 IMF연구진의 추계를 보면1976~78년간 우리나라 총가구중 최상위 1%가구가 총개인재산의 32.1%, 상위 5.4%가구가 그 55.1%를 소유하고있다.

반면 하위 30·3%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겨우 전체의 5·8%에 지나지않아 자본주의 제국중에서도 극히 불평등한 편에 속하고있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정치·경제권력이나 부 및 정보를 소수자가 독점·전유함으로써 전반적인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경제의 불평등구조를 타파하고 이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민주주의의 논리와 과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Ⅱ. 한국경제 민주화의 논리와 과제

1. 경제민주주의의 논리

경제민주주의의 이념은 경제적 자유·평등이지만 그 본질은 경제적 평등화와 동권화에 있다. 경제적자유도 부나 권력및 정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평등한 자유」(egual liberty)가 실현필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경제권력및 정보의 평등화및 동권화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민주화, 결정(=관리)의 민주화, 정보의 민주화가 동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소유민주화는 부 내지 경제력의 분산과 대중적참가를통해 「재산소유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또는 「자본소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정보민주화는 정보의 분산및 공개와 대중적참가를통해 정보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 소유및 정보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주의와 근본은 경제결정내지 관리민주화에있다. 이것은 요컨대 사회적의사결정방식을 가리키고 말할것도없이 집권과 독재에 대한 분권과 참가의 방식으로서 그 근간에는 치자와 피치자, 관리자와 피관리자 사이의 자기동일성이 지배하는 체제로서 자기통치, 자기결정 자기규율을 기본원리로한다.

분배공정은 소득·재산·기회·정보 등의 분배상태나 그 결과의 공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분배상태나 결과를 가져오는 분배기준 내지 선택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즉 경제결정권력의 공정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

권력독점에 의한 「지배·종속」이나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다원화하고 각종 대항력이나 동권적 참가에 의해 밑으로부터 통제함으로써 경제권력이 사회적합의를 기초로 민주적·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그 권력행사의 방법여하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 내지 관리주체로서 권력행사에 동권적으로 평등하게 참가하는 「참가민주주의」와 의사결정 내지 관리권을 특정주체에게 위임하거나 처음부터 관리권이 없는 구성원이 그 권력의 자의적행사에 단체교섭이나 파업등 대항력을 무기로 교섭, 대항하는 「대항민주주의」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또한 경제민주주의는 그 적용영역에 따라 시장사회와 조직사회에 적용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시장민주주의는 독과점대기업의 시장지배에 의한 시장적 의사결정으로부터의 소비자소의를 극복함으로써 소비자의 대항력이나 참가를 통해 「소비자주권」을 살려 시장의 자치질서 즉 그 경제민주주의적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조직민주주의는 기업·공장·직장 등 각종 사경제조직의 의사결정으로부터의 노동자소외를 극복함으로써 노동자의 대항력이나 참가를 통해「노동자주권」을 살리려는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체의 공공의사결정으로부터의 시민소외를 극복함으로써 시민의 대항력과 참가를 통해「시민주권」을 살리려는 것이다.

2. 한국경제 민주화의 과제

한국경제의 기본과제는 지금까지 민중·민족부재의 종속적 관권특혜경제를 청산하고 민중·민족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민중·민족경제의 실현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민중이 자본소유의 주체가 되고 민중이 경제운영의 주체가되는 경제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중에 의하지 않고는 진실나 토지의 민주적 사회화나 기능적사회화; 토지·주택 및 대지소유상한제를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2. 경제결정 참가와 관리민주주의

이미 보았듯이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은 경제적의사결정에의 모든 성원의 참가와 대항력을 통한 관리민주화에 있다.

그것은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 정부정책의 불공정, 기업의 노사관계의 비민주성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악폐의 근원은 의사결정권력을 소수자가 독점·전유하여 이를 전제적지배의 지렛대로 하고 있기때문에 권력을 사회화·민주화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근원적으로 폐절하지 않고는 자유는 물론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경제결정시스템의 구조나 불평등한 경제권력의 민주화야말로 경제민주주의 확립의 근간이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사결정에 전국민적 참가와 대항력을 통한 계획민주주의시스템의 확립이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의 한 내용으로서 「국민경제평의회」등을 통해 노동조합·소비자단체·농민단체등각종 이익집단의 참가에 의해 민주적정책결정내지 계획관리시스템의 확립이다.

둘째, 기업·공장·직장레벨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경영관리참가나 대항력을 통한 민주적노사관계시스템의 창설이다.

이것은 우선 노동3권이나 노조의정치활동등의 실질적보장을 통해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확보함으로써 노동측의 대항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의 경영관리참가는 이러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위에서 궁극적으로는 서독형의 노자동수의 공동결정제도로 지향하여 우선 휴가·작업환경등 복지·문화적사항으로부터 승진·해고·배치등 인사·사회적사항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투자·판매·생산등 경제적사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학·신문사·방송국등 공익조직에는 교수·교직원·학생·기자등에의한 자주관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세째, 민주적시장규제와 독과점통제이다. 이미 독과점품목이 전공산품의 90%이상을 차지할 만큼 독과점대기업의 시장지배가 일반화됨으로써 소비자주권은 이미 허식화된지 오래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정부의 독과점통제도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행정지도위주와 경쟁유화로 인해 거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독과점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등 「위로부터」의 통제와 합계소비자단체의 대항력이나 경영참가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통제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실로 중요하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통제도 국회및 법원에 의한 심사등이 민주적통제시스템으로서 확립되어야 하며, 행정부통제의 사후적공개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3. 정보참가와 정보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 행정관료나 경영관리자의 정보독점을 타파하고 정부의 정책정보나 기업의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이에 대한 시민·노동자및 소비자의 정보참가를 통해 정보민주주의를 확립할 필요가있다.

이는 정부및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특히 기업회계 등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한국경제민주화의 논리와 과제 및 그 대략적인 기본방향이지만 이러한 경제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노동자·소비자등 일반 국민대중이 올바른 이념 및 노선을 정립하여 주체적·민주적으로 즐기차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본시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협상 나선 노동생산성상승률은 연평균 12.6%인데 실질임금상승률은 연평균 7.8%로 적정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만성적인 저임금구조가 계속되고있다. (사진은 87년8월 항쟁시 불법파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미디어 학반

▲「남을 나자신과 동등하게 대하고 또한 합당하게 상대한다」「자자의 것은 자자에게 귀속시킨다」

이 두가지 원칙성에 입각한 협평(衡平)의 사고는, 인간의 사적·공적관계에 적절하고 합당한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이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행위주체가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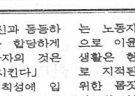
「자신이 인간인 만큼, 다른 사람도 인간임을 인식한 가운데,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시키지말며 자신이 바라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대해주라」

위와같은 상호(相互)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이스 철학자들에 의해 거론되기 시작하여 모마의 법학자들은 「협평」을 「자기의 동료와 평등해질수 있는 인간의자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17C중기의 한문서를 보면 협평의 황금률은 「어떠한 자의적인 힘으로, 한 사람이 타인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협평의 원칙」은 인식차원에서 그칠뿐, 미미한 효능조차 갖고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성은 「협평의 원칙」의 중요성을 희석화 시키는 필수조건으로 운동한다.

형평의 원칙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살아가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그들을 지배함으로 이윤을 얻는 자본가들의 풍요로운 생활은 현 사회의 가장 첨예한 모순으로 지적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몸짓 하나 하나는 국가권력을 방패로한 부르조아 계급의 위장폐업·부당해고등으로 사업장마저 잃게되고 만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서로 동등하고 올바르게 상대해야 한다」는 협평의 원칙은 당연한 것처럼 무시되어지는 반면 지배계급을위한 권력기구는 노동법·집시법·국가보안법등 갖은 악법이 속출되어지고 있다.

다시말해 없는자들의 삶은 소유욕에 가득찬 가진자들에 종속되어 상호선협(相互善行)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것이다.

▲최소의 양심조차 갖지못하는 지배계급의 사고에서 이미 오래전 협평의 원칙은 사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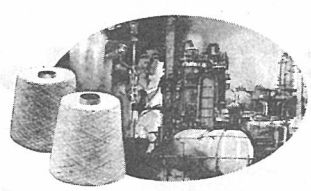
인간적 대우요구를 폭살하는 폭력은 협평의 사고를 도살해왔다.

그러나 불이 차면 넘치기 마련이듯 누적되어가는 사회모순구조에 대항하는 없는자들의 투쟁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후퇴나 정지없이 진취적으로 전진해 나갈때 굴주리고 소외당한자의 권리획득은 물론, 없는자로서가 아닌 평등한 인간으로서 협평의 원칙은 인식차원만이 아닌 실천으로 이땅에서 부활할 것이다.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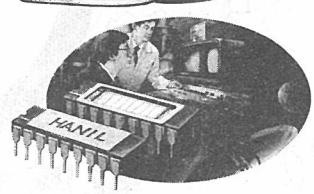
현 한국경제는 관권특혜, 신중상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로 일관

민중주체의 경제민주주의 확립시급



섬유·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규모의 아크릴 생산을 자랑하는 한일합섬,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고급복지 전문메이커 경남모직 등으로 세계속에 섬유한국을 심어 온 한일그룹 — 이형단면사·도전성섬유 등을 개발해 화학섬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한일그룹은 신소재섬유·고분자재료·정밀화학분야에도 적극 뛰어,풍요로운 생활을 앞당기고 있음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스포츠제품과학연구센타를 운영,품질개선·소재개발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일그룹 — 한국의 상표 프로스펙스로 스포츠과학을 실현,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음니다. 아울러 하얏트 리젠시 제주와 부산,통도컨트리클럽 등의 휴양시설과 레저공간을 갖추고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음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R & D)센타'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집약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일그룹 — 각종 통신전자제품 분야에 참여하여 국산화를 제고해 기여하고 있는 한일그룹은 국제적으로도 초기기술단계에 있는 갈륨비소(GaAs)반도체 및 광통신소자 생산을 추진,고도 정보화시대를 겨냥한 편리한 생활을 앞당기고 있음니다.

한올의 실에서 첨단 반도체까지-韓一그룹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음니다.

韓一그룹 ● 한일합섬 ● 국제상사 ● 경남모직 ● 동서석유화학 ● 부국증권 ● 하얏트리젠시-제주 ● 하얏트리젠시-부산 ● 진해화학 ● 통도컨트리 ● 한효건설 ● 한효개발 ● 연합물산

민족해방 그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1>

「새로운 사상」 등장과 유물변증법 계승

현대와 변혁이념〈상〉

전시기 민족민주운동의 매개투쟁은 변혁운동론의 불철저성을 명확히 검증했다. 그것은 역으로 올바른 실천지침을 보증하는 과학적 변혁론 정립을 긴박히 요구한다.

이에 본보 학술부는 변혁론정립을 차단하는 각종 굴절된 시각과 편향적 해석을 평가하면서 이상의 요구에 복무코자 한다. 아울러 본기획은 소모적 논의지양을 위해 일정한 기본관점을 전제한다. <편집자주>

민 지 하
〈현대사연구가〉

Ⅰ. 서—사상문제 재정립의 필요성

86년 변혁운동 내부에 제기된 「올바른 사상·이론」의 문제는 변혁운동을 한단계 더 높은 질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87년 수행된 객관적인 변혁운동의 전 과정을 평가해 볼 때, 올바른 사상 이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내용이 광범하게 유포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이 매개 실천을 규정하는 압도적인 물질적 힘으로 되고 있지는 못함—즉 정착하게 해석, 이해되어 정책과 노선, 실천방법론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규정력, 지도력의 미흡함이 새로운 사상의 정당성과 생명력까지도 평가절하시키는 근거로 작용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도 불구하고 신식민주의 지배세력의 간교하고도 치밀한 술책에의해 어떤 가시적인 정치적 성과도 쟁취하지 못한체, 87년의 과제가 그대로 이월된채 맞게된 88년에 있어서 사상의 문제를 다시한번 정립하는것이 더욱 중요해지는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때문이다. 사상의 본질, 핵심을 올바로 이해할때만 이 사상을 이론·방법으로 구체화시킴에 있어서 관념적인 추상성이나 좌우편향에 빠지지않게 필것이다. 또한 본 기획의 일관된 논의전개를 위해서도 사상의 문제를 정리하는것을 첫회로 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새로운 사상」을 올게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이다. 즉 이전 변혁사상과의 차이, 그 계승·발전을 명제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악할 때만이 그 사상의 진수와 의의를 전면적으로 이해할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의 사상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구(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존, 생활할 수 있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보다 고도화된 「정신의 노예화=지배의 안정화·영구화」가 결합되었다. 중세 봉건사회를 지배하던 신의 절대적 권위는 신흥 부르조아 계급의 필요에 의해 무너졌지만, 그 공백은 곧바로 부르조아 사상의 다양한 변형들인 합리주의, 실존주의, 염세주의, 실용주의 등의 온갖관념론과 형이상학으로채워졌다. 사회 현실을 이미 주어진것, 즉 고정불변하며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당위적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인간의 실천에 의한 변혁보다는 순응과 안주를 강요하는 이들 철학과 싸워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해방, 나아가 전 인류해방의 관건적 문제임을 직시한 마르크스는 관념론에 대항하는 유물론, 형이상학에 대항하는 변증법을 창시·발전시키게 된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핵심이 세계가 어떤 초월적·정신적 존재(신 혹은 절대이념 등)에 의해 관념의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물질로서의 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 법칙성에 따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물질의 선차성을 이야기하는 기계적 유물론은 있었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은 단순한 물질운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운동 내에서의 인간, 인간의 실천문제를 밝힘으로써, 단지 세계를 해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투기로서의 철학이 정립된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회 역사운동 법칙 해명에 적용시켜서는 기 자본주의 단계였던 마르크스 시대와는 달리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하고 제국주의의 전일적 지배가 신현된 제국주의 시대에서, 또 선진 자본주의국이 아닌 후발 자본주의국, 그중에서도 짜르전제로 인해 봉건성이 가장 완강하게 남아있던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전시대와는 다른 시대적 조구가 존재했고 이것이 당시 러시아에서 레닌주의가 탄생되는 필연적 근거라 할수있다.

레닌주의는 『가만히 있어도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베른슈타인류의 경제결정론, 속류 유물론으로 전락해버린 제2인터내셔널의 온갖 기회주의적 사조와 투쟁하면서 최초로 탄생된다. 「객관」과 「경제적 토대」만을 강조하며 인간의 주체적 실천, 목적의식적 노력을 방기하는 경제주의에 대해 레닌이 얼마나 가열차게 투쟁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진수를 회복시키려 했는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의 초기 저작에 잘 나타나고 있다.

레닌주의의 위대함은 단지 마르크스주의의 본래적인 생명력을 부활시켰다는데 있지만은 않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실제로」 수행해나가면서 새롭게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완벽하지는 아니라 해도 일정정도 해답을 내릴수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부르조아들이 이미 그 진보성을 상실한 사회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수행될수있는가? 또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다음 단계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해 갈 수있는가. 아니 발전시켜야 하는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전설에서는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등이 주로 레닌주의가 직면해서 풀어야만 했던 문제들이다. 여기에 대해 레닌주의가 내린 해답은 『프로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혁명, 이중권력의 수립과 연속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발전』, 『프로레타리아와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적 독재』, 『국가의 전면적인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는 국가권력의 강화,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 등이었고, 이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마르크스주의를 발전·구체화시킨 것이며, 다음 시대, 새로운 사상·이론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다.

특히 레닌이 『자본주의적 요소는 사회주의 성립 이후에도 완강하게 지속, 재생산되며 한동안 자본가 계급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계급으로 존재한다.

이렇수 있는 것은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물적토대뿐 아니라 더 크게는 구조화되어 전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상·문화 때문이다』라고 파악하여 계속되는 자본가와의 계급투쟁을 위한 무기로서 프로레타리아 국가권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회변혁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이후의 사회발전을 전망하는데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가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승리를 거두기 위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내용,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간실천의 중요 측면이 무엇이 되어야하는지 까지는 명백하게 해명되지 못했고 이러한 레닌주의의 한계로 인해 이후 스탈린, 후루시초프, 모택동등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일정한 좌우편향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러시아혁명이 최초의모범 이상의 교조적 권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구체적 실정이 다른 많은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여러가지 혼란과 오류를 겪게 되고 이것은 코민테른 해체 이후 더욱 심각해진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레닌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하나의 새로운 사상이 필실히 요구되었다.

Ⅲ. 현대와 새로운 변혁사상

1. 새로운시대의 내용

세계사에 있어서 현대는 분명 여러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이다. 이 새로운 시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이시기를 확정할수 있을 것인가?

일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시킨 러시아 혁명은 현대의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 전세계적인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반파시즘 운동 등을 경험하며 점차 진보세력의 힘이 강화되고, 그 결과는 1945년 2차대전의 종전 이후 세계체제의 재부의 모순이 격화되고, 반전반핵 평화옹호 세력의 힘이 강화된 것, 마지막으로 현대 세계변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 볼 수 있는 식민지·종속국의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곳곳에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됨으로써 제국주의 체제의 수축이 하나씩 진단되어 나간 것, 이렇게 세가지 측면의 진보역량이 강화된 것이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새로운 사상의 탄생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는 것이다.

『근로민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했다』는 명제가 담고있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첫째, 전세계적으로 변혁과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사회주의가 일국이 아닌 하나의 체제로 성립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가 아닌 자본주의—사회주의 체제로의 양분이 이루어지고 점차 양체제간의 역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 제국주의 체제 내부의 모순이 격화되고, 반전반핵 평화옹호 세력의 힘이 강화된 것, 마지막으로 현대 세계변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 볼 수 있는 식민지·종속국의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곳곳에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됨으로써 제국주의 체제의 수축이 하나씩 진단되어 로민중을 실질적인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만든 기본동력이다. 두번째는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소망,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실천 영역의 확대와 그 실현 가능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시대는 철학이든 사회역사원리든 인간의 실천론이든 여러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고, 이미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완벽하게 해명해줄것을요구했다. 여기에 「새로운 사상」은 어떤 해답을주었고, 과연 그것은 이전시대의 변혁사상의 참조적 계승·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간단히 결론내릴수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담고있는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그칠수 밖에 없고 그 사상에 대한 평가는 보다 체계적인 내용정리와 함께 독자들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새로운 사상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제되어야할 점은 이 사상이 선행 변혁사상을 기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부정했다는 것, 즉 선행 사상의 진수 핵심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의 기본 원칙들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며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내용을 확대 심화시킨 것이라는 점이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상의 내용을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인간의 실천지도원리 이렇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호에 계속〉

> 새로운 사상은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유물론의 기본원칙과 단절되는것이 아닌 그것을 전제로 하며 그 성과의 토대위에서 내용을 확대·심화시킨 것이다

> 새로운 사상은 선행변혁 사상의 교조적권위를 극복하고 그 진수를 계승하는 창조적 변혁이념

> 변혁이론의 관념적 추상성과 좌우편향성의 해소는 사상의 본질과 핵심을 올바로 이해할때만 이 가능

Ⅱ. 시대와 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발전사

하나의 사상, 특히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는 하나의 변혁사상은 어떻게 탄생·발전하는가? 86년 우리앞에 제기되었던 「올바른 사상·이론」의 문제는 변혁운동을 한단계 더 높은 질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87년 수행된 객관적인 변혁운동의 전 과정을 평가해 볼 때, 올바른 사상 이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 내용이 광범하게 유포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이 매개 실천을 규정하는 압도적인 물질적 힘으로 되고 있지는 못함—즉 정착하게 해석, 이해되어 정책과 노선, 실천방법론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규정력, 지도력의 미흡함이 새로운 사상의 정당성과 생명력까지도 평가절하시키는 근거로 작용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도 불구하고 신식민주의 지배세력의 간교하고도 치밀한 술책에의해 어떤 가시적인 정치적 성과도 쟁취하지 못한체, 87년의 과제가 그대로 이월된채 맞게된 88년에 있어서 사상의 문제를 다시한번 정립하는것이 더욱 중요해지는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때문이다. 사상의 본질, 핵심을 올바로 이해할때만 이 사상을 이론·방법으로 구체화시킴에 있어서 관념적인 추상성이나 좌우편향에 빠지지않게 필것이다. 또한 본 기획의 일관된 논의전개를 위해서도 사상의 문제를 정리하는것을 첫회로 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6회 「외대학술상」 논문 모집

과학적 세계관을 통하여 합리한 현실을 극복할 길을 찾습니다. 학우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바랍니다.

마감 : 5월31일(토)

◇대 상 : 본교 재학생
◇모집부문 :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 (각부문 원고지 80매내외)
◇주 제 : 자유선택
◇접 수 처 : 학생기자실(서울—학생회관309호, 용인—학생회관212호)
◇상 금 : 각부문 당선작 30만원 (당선작이 없을때는 가작 15만원)
◇심사위원 : 추후 발표

※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대학보

세 가지 조건 중의 한 가지!

본인의 열의, 훌륭한 스승, 그리고 좋은 사전—외국어 학습에 중요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좋은 책 만들기에 힘써온 (주)금성출판사와 금성교과서(주)가 꾸준한 연구와 첨단과학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든
Longman英英辭典과 Bigman英英韓辭典을 자신있게 펼쳐 보입니다. Longman과 Bigman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영어 학습의 1 3을 시작했읍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십시오.

LONGMAN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롱맨 英英辭典

● Longman英英辭典 은
● 38,000여의 현대 미국어를 2000어 이내의 상용어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빨리 이해할 수 있다.
● 유익한 용례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작문이나 회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전면 크기의 Study Note를 마련하여 각 품사의 요점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으며 Usage에서는 관용어의 활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절찬리 판매중

• Longman英英辭典 정가 : 6,000원
• Bigman英英韓辭典 정가 : 9,900원

Bigman '88최신판
英英韓辭典
ENGLISH ENGLISH KOREAN DICTIONARY

● Bigman英英韓辭典 은
● 엄선된 80,000여의 어휘를 작문·회화 등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65,000여의 용례를 수록
● 참신하고 정확한 우리말 대응어와 명쾌한 해설로 뚜렷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읍니다.
● 알기 쉽고·찾아보기 쉽도록 문형과 Collocation을 표시하고, 풍부한 용례를 수록한 Usage 난을 두어 'Thesaurus'의 구실을 겸하도록 하였읍니다.

辭書의 名門
(주)금성출판사 서울·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금성교과서(주) 우 121-022 · ☎(713)9651~8

한국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교육민주화

최 경 순
〈사범·영교 4〉

1. 머리말

사회제반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성장해온 교육운동은 80년대 들어와 해방이후에 단절을 딛고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실천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수시로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학업에 지친 어린 중·고생들의 자살, 시위전력 사대생의 입용제외, 교육현장의 각종 비리, 교육운동에 대한 탄압등의 암울한 소식들은 바로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이러한 제반의 개별적인 문제들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인 정치·경제와의 연관속에서 총체적으로 인식되어야만 하며, 그럴때만이 자생성의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

2. 한국교육의 전개과정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교육은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에 본질이 있으며, 계급 갈등을 완화, 은폐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계급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신식민지 상황에서는 개량의 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기에 민중의 계급적 이해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교육은 진행되어 왔으며, 이것은 식민지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철되어오는 경향이다.

한국의 근대교육의 출발은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밀려오는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조선의 자각된 지배계층이 위기의식과, 선교사들을 내세워 미국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 진영의 조선에서의 발판구축이 맞물려 활발히 추진되던 근대교육은, 일제의 진출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체와 퇴보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원료공급과 상품시장,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일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토지측량작업으로 조선의 봉건제 해체와,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체제유지를 위한 저급한 기술 노동력 양성과 중간매개로서 식민지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설정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학교와 농업학교 증설로 나타났으며, 일본어, 역사, 지리교육을 통한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이를 담당하기위하여 교육 행정기구의 중앙 집권화, 교육내용에대한 통제의 강화로 나타났다.

일제패망후,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남한을 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속에 편입,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신 식민지로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정치·경제구조의 예속이 진행되면서 병행적으로 교육 또한 예속되어 미국유학을 갔다와야 실력을 인정받는 지식의 미국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신 식민지에서 교육은 식민모국과 지배계급의 가치관전수 기능이 강화되며, 이에 미국은 미국식 제도이식과 식민지 유제의 유지라는 이중의 식민 정책으로 식민지교육구조를 구축하였다.

정치·경제적 모순구조의 해결이 없는 한 교육개혁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남한에 예속적 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한 미국은, 미국식 교육내용, 제도를 이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한국에 이식시킬 수 있었다.

한편 미·일 다국적 기업의 진출, 매판자본의 이익 관철, 등이 맞물린 경제성장기는 독점의 강화와 예속의 심화를 나타냈으며 교육과정에서 인력개발의 개념이 도입되고 실질과 효율을 숭상하는 경제적 인간, 기능적인간의 창조가 교육문화의 이상으로 표현되었다. 이과정에서 교육은 입신출세의 수단, 이기적 계급상승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무제한의 경쟁과 과정을 무시한 독적 제일주의로 치달게 되었다.

80년대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안고, 더우기 점령성조차 갖지 못하고 재창출된 정권은 미 제국주의에 의해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회모순을 은폐하려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지만 모순은 계속 심화, 내연되었다. 교육에 재창출하여 일정정도 개량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들어선 제6국화국의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제5공화국의 그것과 동일할수 밖에 없다.

제5공화국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도교육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강화이다. 제5공화국교육정책의 중심은 7·30조치이다. 이는 체제와 모순을 교육부문에 전가함으로써 체제의 일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외금지·대학졸업정원제·고교 성적 내신제·사학 부조리 척결등이다. 이것들의 제기된 배경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대학졸업 정원제를 보면, 해방이후 민중운동의 단절로 말미암아 민중운동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온 학생운동 세력이 10·26이후 급격한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기층민중과 괴리한 연대를 형성하게됨으로써, 강력한 학원통제정책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이것은 경제부에서 일정부분 고급인력의 부족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대학정원 억제정책이 압적 제약을통한 학원통제정책에서 대학정원의 대폭확대를 통한 통제라는 전혀상반된 방향에서의 학원통제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학원통제정책은 졸업정원제의 형태로 나타나며, 획일적 강제탈락으로 학생들을 성적에 묶어세움으로서 정치적집단화를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둘째, 고교성적 내신제를 들수 있다. 이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과외금지를 그럴싸상 채택이유로 들지만, 본질은 기타과목으로 밀려나 전대를 받고있던 지배계급의 이념교육과 독인 국사·국민윤리·사회교육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내신제는 내신등급을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학생이 몰리는등 학교교육 정상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세번째, 사학정책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사학에대한 통제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 내용은 사학의 재정적 자립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입학정원과 등록금의 국가통제를 통한 재정자립의 봉쇄는 국가지원에대한 사학의 의존도를 높여 통제력을 강화 하였다. 또한 국가권력은 사학의 재정적 자립을 봉쇄함으로써 음성적 자본증식(비리)의 가능성을 주어 이를 묵인·비호하는 댓가로 국가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넷째, 이외의 교원대학, 교육운동단체에대한 탄압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이전의 것들과 함께 국가권력의 교육에대한 통제의 관철과정으로 표출되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교육은 나름대로 자기 운동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민주화는 교육부분 독자적으로해결될 수 없으며 교회가 종교를 통해 영속화시키지않고 교회를 창출하고 영속화 시키는 것이 종교이듯이 정치 경제와의 연관속에서 파악될때만이 교육의 민주화로가는 올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울한 교육현실은 교육운동이보다 실천적인 문제로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수있다.

민중이 왕위에 등극(登極)하는 새날

이 재 호
〈본보 학술부장〉

K형.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아마도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인겨 같습니다. 누구나 그랬겠읍니다마는 그날 K형은 허탈감과 분노에 가득차 술만 마셔댔읍니다. 「어떻게 경취한 직선제인데…」, 「고작 독재정권의 들러리나 서기위해 종로에서 밤동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호헌철폐·독재타도를 외쳤던가…」 끝내 혐은 치솟는 울분과 타오르는 격개심을 이기지 못하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었읍니다.

그러나 K형.

이제는 차분히 지난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지난시기의 과학적인 반성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다시세우고 오똑이처럼 굿굿하게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합법적성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K형.애당초 우리들이 내심 바랐던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그 판단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뿌리가 같은 동질적 집단사이에서 정권이 옮겨지는 것이 진정 정권교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단순한 정권이양에 불과합니다.

심적이 판이한, 적대적이라면 적대적일수있는 이질적집단에로의 정권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읍니다. 더우기 2천여 등록을 죽인 학살자들이 아무리 합법적인 선거절차라곤 하지만 온전히 정권을 넘겨줄리가 있겠읍니까. 평화적 정권교체란 그네들이 만들어낸 민중을 호도하고 착각케 하기위한 한낱 허위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굳건히 뒷받침하고있는 반도남녘의 식민지치하에서는 평화적 정권교체란 결코 이루어질수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중이 권력의 주인으로 올라서는 승엄한 의식이 어찌 그네들의 양심에 맡겨져 치려질수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전 제가 생일선물로 받은 김남주 시인의 시집 「나의 칼, 나의피」에서 「나자신을노래한다」는 내용의 싯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많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달라 제우스에게 무릎꿇고 구걸했던가/바스티유 감옥은 어떻게 열렸으며/…그리고 루바민중의 폰까따 습격은 웃음거리로 끝났던가/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났던가/루이가 짜르가 바더스타가 투자비한 발톱의 전제군주들 스스로 제 등지를 떠났던가/골레비와 소모사와 이아무개와 박아무개가/지 스스로 물러났던가/물노니 그들에게/어느시대 어느 역사에서 투정 없이 자유가 정취 된 적이 있었던가/도대체 자기희생없이 어떻게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단 말인가/혁명은 전쟁이다 고/피를 흘림으로써만 해결되는 것/나는 부르젖다. 나의 노래를/죽어가는 내 손아귀에서 칼자루가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K형.

얼마전 「KBS—심야토론」에서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한 공영방송의 반쪽자리 토론에서 내린 결론은 지극히 도식적인 수준을 넘치 못했읍니다. 한·미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로 상호협력해야한다는 것이었죠.

혐도 최근에 학계에서 벌어진 한국사회 성격에 대한 논쟁에서 한국사회는 신식민지사회라는 규정을 내린것을 보았겠지요. 이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식민지니 신식민지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다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박정희의 등장과 몰락, 전두환의 부상, 노태우의 집권은 미국의 시나리오에 의한 꼭록자시놀음에 다름아니었다는 점입니다. 「5·16은미국 CIA의 최고 걸작품이다」라는 미고위관리의 말은 역사의 쓰라린 교훈으로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도사리고 있는한 평화적 정권교체란 빛좋은 개살

〈바람의 여백〉

"우리가 자신있게 「전사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때, 평화적 정권 교체는 다가옵니다"

정이라기 보다 전사여 전사!」라고 외미심장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을때 과연 자신있게 「전사요!」라고 대답할 수 있겠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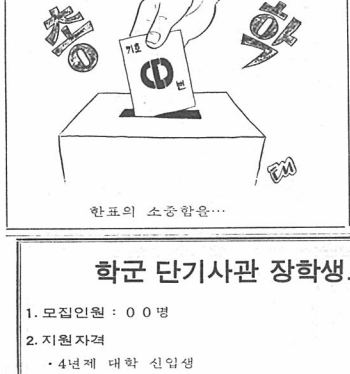
K형.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져가지만 우리가 자신있게 「전사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때만 진정 평화적 정권교체는 다가올 수 있는 것이며 민중이 왕위에 등극(登極)하는 새날이 오는 것임을 굳게명심합시다.

구입니다. 정권교체는 오직 우리 민중들의 뜨거운 피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K형.

어느 후배가 김남주 시인에게 「형님은 시(詩) 말고 다른 산문도 많이 쓰십니까.가령 시론이라든지 시사평론같은거 말이에요」하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김남주 시인은 「어이, 나는 시인이라기 보다, 무슨 글



기자의 눈

왕산골의 공허한 외침

지난 15일(월)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앞 해방광장에서는 「수업개방반대와 노태우 처단을 위한 구국왕산특위」 발족식이 있었다.

개강후처음 열린정치집회였던 이날 비록 많은 수는 모이지 않았지만 동면에서 깨어난 진리의 이고 신입생을 의식한 선전적집회라 그런지 그 열기는 뜨겁기만 하였다.

「여러분,지금 조국의 현실은 어떠 합니까.노태우 군부독재 집단이 민의를 왜곡한 부정선거로 재집권하였고 [미국은 민중생존을 압살하는 경제적침략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외세와 군부독재집단에 의해 짓밟힌 조국강산과 민족을 구하는 길은 대동단결,대동투쟁뿐입니다.」

그러나「대동단결을 요한다」는 발족선언문과는 달리 이날 벌어진 일련의 광경은 외대인 서로간의 양분화된 의식의 한단면을 보는 듯 하였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대오를 형성하여 교내시위에 들어갔고, 그 사기또한 어느때보다 충천하였지만, 이에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였고 심지어 시위대열에 불만을 터트리며 욕설을 하는 학생들 마저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냉소적인 태도는 어문학관 식당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식당으로 향한 대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거침게유인물을 찢는등,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자신의 일외에는 하나둘 자리를 뜨기시작, 결국 서너명만이 앉아 경청하고있는가운데 「대동단결」을 외치는 투위장의목소리만 공허하게 메아리져 울릴 뿐이었다.

미련없이(?)떠나는 학생들의 뒷모습을보며 현실에대한 상이한 의식격차가 급기야 외식의 흑백논리로까지 치달지않았나하는 우려를 금할수 없었다.

자리를 피하는 이유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대학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상황과 현실적사명에 기초한 대학본연의 공동적 목적의식인 진리창조와정의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만은 다양성이란 치부할 수없을 것이다. 현재 대학이 처한 위치와 이에따른 현실적책임의식도 몇몇 사람만의 양심차원의 인식이 아닌 전체학생 대중의 공통적인 시대인식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어두어져만 가는 이시대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캠퍼스의 절규와 함성 또한 더욱더 치열해져만 가고 있다. 참진리에 대한 뜨거운 외침만큼이나 서로간의 공통적 역사의식에 기초한 대동단결이 필요한때이다. 절규하는 동료학우의 구호소리를 듣고도 최루탄에 의해흐르는 쓰라린 눈물을 보고도 무디어지는 불감증(不感症)은 이제 치료되어져야 하지않을까. <강병준기자>

학군 단기사관 장학생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신입생
   - 68년1월1일~72년1월1일출생자
   - 장교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교부및 접수
   - 기간 : 88년2월22일(화)~3월26일(토)—학군단행정실
   - 구비서류

1차(지원시)		2차(신체검사시)	
· 지원서및 서약서	각 1부	· 호적및 주민등록 등본	각 2부
· 대학 입학성적증명서	1부	· 재정증명서, 납세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진 (4×5㎝)	2매	· 사진 (4×5㎝)	3매

   - 선발절차
     1차 : 서류전형(대학성적)면접, 체력검정
     2차 : 신체검사
4. 합격자발표 : 88년6월2일
5. 의무복무기간 : 10년이상(장기)
6. 특 전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 장교로써 직업군인으로 근무
   - 전공분야 활용
7. 문의처 : 학군단본부
   (전화)962—7124, 교환2412

제119학생군사교육단장

학자금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써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읍니다.

1. 상환방법

구 분		상 환 기 간	상 환 방 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이내	○매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금전액에 대한 이자를납입
장 기 학자금	85. 8. 1. 이전대출자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년이내	원금 :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5. 8. 1. 이후대출자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이내	원금 :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 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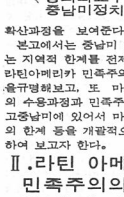
국민은행

중남미 변혁운동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와 마르크시즘

Ⅰ. 머리말

19세기초 이래 독립을 달성한 중남미제국은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되어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었으며 서구의 확산이 뿐에 근거한 발전정책을 추구하여 나갔다。 그러나 국제정치질서의 변동과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 등요됨에 따라 중남미 제국은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자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제국은 대체로 두가지 차원의 내셔날리즘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국 중심적인 민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범미주의 (Pan Americanism) 이다。 이러한 중남미 각국의 일국 중심적 민족주의와 중남미 대륙의 범내셔날리즘은 상호함치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민족주의적 정치이념이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오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요소를 부단히 흡수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이 지역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그 후 수년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의해 마르크스주의의 이념과 조직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 이래의 반미감정의 확산과 민족주의적 경향, 1959년 쿠바혁명의 성공, 1979년 니카라구아에서의 좌익 산디니스타정권 성립 등은 중남미에서 마르크시즘의



민 만 식
〈정외과교수·중남미정치〉

확산과정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중남미 대륙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전제로 하여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의 성격을규명해보고, 또 마르크시즘의 수용과정과 민족주의, 그리고중남미에 있어서 마르크시즘의 한계 등을 개괄적으로 토망하여 보고자 한다。

Ⅱ. 라틴 아메리카 민족주의의 성격

헤이스 (C, J, Hayes)는 민족주의를 민족의식이라는 것과 애국심의 융합체라고 본다。 특히, 어떤 사실에 「익숙하다」 혹은「낯이익다」라는 감정은 민족주의의 가장 원초적 토대이다。 이와같이 민족주의 자체가 강정적 요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선동적, 혹은 급진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념의 결대화를 촉매하여 사회전체가 혁명적으로 동화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있다。

중남미에서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쿠바의 경우, 카스트로가 바티스타정권에 대함하여 게릴라활동을 벌일 때만 해도 카스트로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했고, 당시 미국무성도 카스트로의 게릴라 활동을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무성은 카스트로의 민족주의노선이 쿠바에 있어서 미국의 자본주의적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을 가능성을 탐지했고따라서 카스트로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위태커(A. P. whitaker)가 지적했듯이 마르크시즘이 쿠바민족주의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쿠바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념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카스트로도 1959년부터 1961년에 이르는 혁명초기에는 민족적·민주적 혁명을 자처하였으나 1961년이후 사회주의 혁명임을 공언하였다。 쿠바혁명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마르크시즘의 한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라틴아메리카의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서구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결과를 가능케·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구의 민족주의는 부르조아계급이 민족국가의 형성에 촉매역할을 하였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인 상령위의 보장과 자유방임적 생산구조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다원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경제협위가 자본주의 사회체제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서구 민족주의의 기반이 개인으로서의 인민이었음에 반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전체로서의 인민에 기초한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장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라는 동일한 그리고 비참한 역사적 경험을 갖는 다수의 인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돌째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족주의는 강대국의 종속에서 탈피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남미 민족주의가 갖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대개의 경우 반제국주의적 성향을 띠며, 타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양차대전과 경제 공황 등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유지해오던 단일종목 (mono-cultu re) 경제구조가 엄마나 자국의 경제에 위협한 것인지를 깔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남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내부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주장한 라울 프레비쉬 (Raul Prebisch) 는 수입대체를 골간으로 한 후진국 경제발전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열망에 따르는 민족주의는 중남미 사회의 변혁을 가져온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같은 사회변혁은 계층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까지 정치적 면에서 토지및 전통체제를 지속해온 특권계층에 비해 열세를 보이던 도시상업근로자계층의 세력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도시노동자들은 확대된 정치참여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결성과 도시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주의적인 감정과도 결부되었는데그이유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외국인기업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민족주의의 독특한하나의 양상은 아르리스모 (ARISMO)에서 찾을수있다。

이것은 중남미의 토착적 현실에 따라 페루의 정치사상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되었다。 아이미 민족국가를 성립시켜 국민형성과 국가형성을 달성하였던 19세기 중엽, 유럽에서 자본주의적 체제질서에 반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태동하게 되자 그 영향을 받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사회주의가 도입, 생성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조류중에서 가장 먼저 표출된 것이 루리에 (C. Fowrier) , 생시몽 (Saint Simon) , 오웬 (R. Owen) 등을 대표자로 하는 소위 공상적 사회주의이다。

특히 그들중에 생시몽은 전통사회의 특권계급에 속해있던 귀족·영주·기사등의 유한계급을 과학적 논리와 법칙에 따라 사회를 관리하며, 능력에따라 일하고 그에따라 분배받는 산업계급으로 대체해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간해방과 사회복지를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시몽류의 사상은 주로 문학에서 콘조류를 형성하였고, 1848년 유럽을 휩쓴 혁명의 물결은 이지역에서 사회사상적 도그마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19세기말까지는 그러나 1918년ROM (Confederacion Regional Obrera Mexicana) 의 결정과 더불어 무정부주의적 신디칼리스트의 힘은 쇠퇴하였다。

중남미에서 마르크스주의를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곤란하다。 즉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안에도 모택동의 추종자, 정통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반정부 게릴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반제국주의 나아가서 민족주의를 그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특히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반제국주의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2차대전 후에는 미국에 대한 비공이 더욱 격렬해졌으며 그들의 구호도 평화 그리고 반미주의로 일관하였다。이들은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로 표방하였으나 다분히 친소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착취의 소산이라고 비난하면서 중남미 자체 공업화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운동의 조직화를 위하여 주도권의 장악과 노조간부의 위치강화 전통적인 사회계급질서의 타파에 노력을 기울여 폐부와 과폐말라에서는앞박받는 인디언 원주민 그리고 브라질 쿠바에서는 차별받는흑인의 인권투쟁을 일으켰다。

중남미 공산당은 그들의 정강으로서 농지개혁과 공산주의의 존속을 위해서 우익 독재자와 결탁도 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급진주의자들도 중남미제국의 사회 혁명운동을 그들의 세력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조짐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공산주의 노선으로 전향하려 시도하고 있다。

Ⅲ. 라틴아메리카에서 마르크시즘의 수용과정과 민족주의

라틴아메리카는 19세기초에 이러한 사상은 하나의 사상적 조류에 머물렀을뿐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사회운동을 이지역에 야기시키는 데까지는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유럽이민의 유입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사회 경제적 단합 및 해외자본의 유입결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즉시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에 민감한 세대가 생겨났고 급진적인 사회적 개념들이 문학에서 정치집단으로 이전되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 시각은 마르크시즘의 교리나 전략분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와 신디칼리즘 (Syndicalism) 에까지 뻗어있었다。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노동조합주의 사상은 모든 사회적 모순의 핵심이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에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있었다。

따라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내부적인 갈등도 후자의 완전한 패배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속에서는 정당·선거·입헌정부 등도 일부 지배자들이 자본가이익을 위해서 장악하고 있는 억압기구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중남미에서 노동운동의 초기 역사는 이처럼 사회주의 초기 사상과 무정부주의적 신디칼리스트의 교의로 특징지워졌다。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신디칼리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혁명 이후까지 노동운동의 지배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1890년 아르헨티나 연방공화국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그후 5년만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사회당을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1901년에 무정부주의적 신디칼리스트들은 노동조합을 FORA (Federacion Obrera Regional Argentina) 라고 개칭하면서 노동운동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했으며, 사회주의자들은 곧 전국 노동연맹을 만들었다。 노동운동상의 통일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적 혐위는 공식적인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고 1910년 이후는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운동을 장악하게 되었다。

브라질에서는 이태리에서 온 이민의 영향으로 무정부주의가 강하였고, 1906년에는 노동조합들이 연합한 FORB (Federacao Obreria Regional Brasileia) 가 결성되었으나 1917년과 1918년의 총파업이 실패로 돌아감과 함께 그 힘이 약화되었다。

멕시코에서는 디아스 (Porfirio Diaz) 정권의 몰락을 전후하여 무정부주의자인 플로레스 (Florzes) 와 마곤(Magon) 형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그 결과 페루의 APRA당은 1920년대 초에 이미 근대화와 폐부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구조적인 변혁을 제시한 진보정당이었다。 또한 베네주엘라의 민주혐동당도 스스로 「변혁적인 조직」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정당으로서 민족주의, 반제강주의, 반공주의 등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기독교 민주당과 함께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치안정을 이룩하였다。 멕시코의 PRI당 역시 민중주의적 토대를 가지고. 1910년의 멕시코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개혁·사회복지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오랜기간 집권당으로 지속해오고 있다。

마르크시즘이 중남미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중남미 인구의 과반수가 아직도 농촌인구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도시 노동자, 학생, 지식인 집단에만 집착하는 데서도 찾을 수있다。

또한 보수적 우경군부는 결코 공산주의의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허용치 않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들어서는 민정이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최근에는 칠레, 파라구아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민정이 수립되었다。

대외적 요인으로서 미국에서 미주대륙 전체의 안보적 차원에서 이지역의 공산화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최근의 그라나다사태, 니카라구아 콘트라 지원등에서 그 한 단면을 알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는 마르크시즘이나 급진이념의 확산을 조장할 요인이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이 각국 국내적 환경의 현실인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소련이 니카라구아, 카리브해 등지에서 영향력 확산에 주력하고 있어, 국내정치상 불간섭 및 그 자주성을 표방하고 있는 저개발 군소국가에서 좌경정권이 대두할 가능성은 아무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

우경군부와 미국은 반공주의 정책으로 일관
중남미 마르크시즘은 반제민족주의 경향으로

도스또옙스끼 문학과 허무사상
—죄와벌」「까라마조프네형제」를 중심으로

이 철 〈노어과교수〉

「죄와 벌」에서 허무주의적 인물인 라스꼴리니꼬프는 극도의 자아의지 (自我意志) 로 해서 초인사상 (超人思想) 을 창출하여 이것을 실인으로 시험해 본다。 법률을 초월하고 낡은 관습을 파괴하는 것이 비범인(非凡人), 즉 초인의 권리라고 자처하는 주인공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는 논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자인 노파, 이를테면 「이 (虱) 」와 같은 존재를 살인한후 모름지기 자기도 「이」와 같은 존재임을 느끼게 되고 번민하게 된다。

여기서 그의 비범인의 논리가 붉어지게되어 파멸에 이른다。 도스또옙스끼는 라스꼴리니꼬프의 허무주의를 극복시킬수 있는 인물로 가난한 길거리의 여인 쏘나를 등장시킨다。 쏘나에 의해서 고난을 통한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다음 「악령」에서 허무주적인물로 두가지 유형이 제시된다。 하나는 파괴적 인물인 뾰뜨르 베르호벤스끼와 스따브로긴, 다른 하나는 무신론자인 끼릴로프이다。 전자는 정치적 음모를 꾀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살인을 자행한다。 후자와 무신론은 인간이 파괴해야 할 마지막 적 (敵 은 죽음의 공포라 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살한다。

이것은 반 (反) 그리스도사상인 인신사상 (人神思想) 의 시초가 된다。

도스또옙스끼는 이를 극복할수 있는 인물로 사또프의 소박한 종교를 내세운다。 러시아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러시아 정교 (正敎) 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 사상에 의한 완전한 파괴력 앞에서는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끝으로 「까라마조프네 형제」에서 허무주의적 인물로 반인 까라마조프와 스메르쟈꼬프가 등장한다。 또 이반 까라마조프의 사상을 대변하는 대심문관(大審問官)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것 허무주의자들이 내세운 인신사상과 「구료사와 조시마 장로 (長老) 에 의한 「인사상 (神人思想) 과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신인은 초인으로 이르는 길이긴데, 인신은 그리스도로 이르는 길이다。 인신사상은 휴머니즘사상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신(神) 도 없고 인간도 없이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미래의 초인상 (超人像) 만 남는다。 인신속에서 인간은 파괴된다。 그러나 신인사상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인간이 신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인간으로 남게 한다。 신인 속에서 인간은 보호된다。

도스또옙스끼 문학의 허무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 열쇠는 「자유」의 개념이다。 그러면 도스또옙스끼의「자유」의 실체는 무엇일까? 작가는 대전제로서 「인간은 자유의 길을 가야한다」고 내세운다。

도스또옙스끼의 작품 속에서 「죄와벌」의 라스꼴리니꼬프의 노파살해, 「악령」의 뾰뜨르 베르호벤스끼의 범죄, 스따브로긴과 게릴로프의 자살, 「까라마조프네 형제」의 스메르쟈꼬프나 이반 까라마조프의살인과 발광등은신의 은총의 힘, 다시 말해서 「자유」의 힘을 권력과 강제의 수단으로 구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한없는 자유를 희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유를 희망했기 때문에 결국 자유 그 자체마저 파괴해 버린다。

강연초록

이들은 주로 자유 자체를 중독되어 인간의 위에 있는 존재, 즉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유」의 노예가되어 버린다。 인간의 「자유」는 신적 (神的) 인 「자유」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구원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의 은혜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체험과 극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자유」는 필연적으로 파멸의 길로 내닫게 된다。

도스또옙스끼는, 인간은 가공할만한 자유로운 존재이며, 이 자유가 비극적이고 인간에게 부담과 고통만 지워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신인 (神人) 으로 이르는 길과 인신 (人神) 으로 이르는 길, 즉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도스또옙스끼는 신 앞에 외로워 서 있는 인간이 그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신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까라마조프네 형제」에서 부한한 정신적 번뇌를 거듭한다。

이글은 지난 3월17일 「슬라브학회」 공개강좌에서 본교 이철교수의 강연내용을 요약한것이다。 —편집자

1988년도 시·도별, 구·시·군별 검사일정 (본적지)

1. 징병검사 대상자

○69년 1월 1일~69년12월31일 출생자 (19세)
○기타연기사유가 해소되거나 연기기간이 끝난자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본적지 구·시·읍·면장이 수검일 20일전까지 통지함。

2.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안내

○출원대상 : 본적과 타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출원기일 : 거주지 주·시·군 징병검사개시 30일전까지(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출원서류 : 거주지 징병검사원서 1부(단, 본적지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그 통지서를 첨부)
○출원관서 :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3. 징병검사 연기대상

연기대상	처리절차	참고사항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학적보유자 명세에 의하여처리 (단, 대학이상은 제적연령(세)에 졸업이 가능한자)	○제적연령 : 22세이내에 졸업이 가능한자 대 학 : 24세이내에 제적 대 학 원 : 26세이내에 제적 *연기된 자는 졸업하는 전해에 징병검사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지방병무청장의 출국허가에 의하여 연기	○23세까지 연기
범죄로 구속 또는	○구속확인서, 수형인명표	○구속또는 재감기간중 연기

※서울북부지역 6개구청(도봉,성북,동대문,은평,노원,중랑구)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의정부 병무지청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됩니다。

북역중에 있는자	또는 재소중병서에 의하여 연기	*혈액장자중 군복무 부적격자는 북역중에도 소집면제 처분。
질병중이거나 중병인 가족 간호등	○징병검사기일 5일전까지 신단서등 발송에 의하여 연기	○일원 또는 간호기간중 연기

○재학사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주소지 본적지의 주·시·읍·면장에게 재학사유 신고(원화 또는 우편도 가능)

4. 입영희망원 출원 안내

○재학중 입영원을 접하는 자는 학적을 보유한채 본적지 주·시·읍·면에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법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영통지서 수령후 휴학수속 (학업공백해소)

시도	주·시·군	검사기간
서울	종로구	2. 9~2. 25
	구로구	2. 26~3. 10
	서대문구	3. 11~3. 29
	관악구	3. 30~4. 11
	마포구	4. 12~5. 3
	강동구	5. 4~5. 9
	송파구	5. 10~5. 14
	중구	5. 16~6. 8
	동작구	6. 9~7. 2
	성북구	7. 4~7. 20
	성동구	7. 21~8. 23
	강서구	8. 24~8. 27
	양천구	8. 29~9. 2
	강남구	9. 3~9. 6
	서초구	9. 7~9. 12
	영등포구	9. 13~9. 30
	성북구	6. 7~6. 27
	동대문구	6. 28~7. 15
	중랑구	7. 16~7. 22
	도봉구	8. 3~8. 12
	노원구	8. 13~8. 20
	은평구	8. 22~8. 30
부산·경남	양산군	2. 9~2. 17
	울산읍	2. 19~2. 23
	울산남구	2. 24~2. 27
	울산동구	2. 29~3. 2
	울주군	3. 3~3. 10
	부산진구	3. 11~3. 24
	김해읍	3. 25~4. 9
	부산중구	4. 11~4. 14
	부산동래구	4. 15~4. 26
	부산금정구	4. 27~4. 30
	부산남구	5. 2~5. 12
	부산강서(출)	5. 13~5. 16
	부산해운대구	5. 17~5. 21
	부산북구	5. 24~5. 28
	부산서구	5. 30~6. 11

시도	주·시·군	검사기간
부산·경남	부산사하구	6. 13~6. 18
	부산동구	6. 20~6. 29
	산청군	7. 1~7. 12
	함양군	7. 14~7. 22
	거창군	8. 3~8. 16
	합천군	8. 18~9. 13
	부산영도구	9. 5~9. 14
	김해시	9. 15~9. 17
	김해군	9. 19~9. 30
	진해구	4. 6~4. 18
	통영군	4. 20~4. 28
	충무시	4. 29~5. 3
	하동군	5. 6~5. 17
	남해군	5. 19~6. 1
	사천군	6. 3~6. 7
	진주시	6. 8~6. 15
	진양군	6. 17~6. 30
	진주시	7. 1~7. 8
	고성군	7. 9~7. 20
	창녕군	7. 21~8. 11
	합천군	8. 12~8. 23
	의령군	8. 24~9. 1
	의령군	9. 2~9. 8
	마산시	9. 9~9. 17
	진해시	9. 19~9. 23
	창원시	9. 24~9. 30
대구·경북	월성군	2. 9~2. 17
	달성군	2. 19~2. 26
	고령군	2. 27~3. 4
	성주군	3. 5~3. 12
	경산군	3. 14~3. 22
	성주군	3. 23~3. 30
	의성군	3. 31~4. 14
	군위군	4. 15~4. 21
	영천시	4. 22~4. 26
	선산군	4. 27~5. 3
	영천시	5. 4~5. 6

시도	주·시·군	검사기간
대구·경북	영천군	5. 7~5. 19
	경주시	5. 20~5. 26
	월성군	5. 27~6. 9
	대구북구	6. 10~6. 18
	대구남구	6. 20~6. 24
	대구서구	6. 29~7. 1
	대구서구	7. 2~7. 6
	대구동구	7. 7~7. 16
	대구수성구	7. 18~7. 22
	대구중구	8. 3~8. 10
	달성군	8. 11~8. 23
	칠곡군	8. 24~8. 26
	칠곡군	4. 6~4. 28
	칠곡군	4. 29~5. 3
	경산군	5. 4~5. 11
	경산군	5. 12~5. 17
	경산군	5. 18~5. 28
	경주시	5. 30~6. 1
	경주시	6. 2~6. 14
	경주군	6. 15~6. 28
	경주군	6. 29~7. 1
	경주시	7. 12~7. 14
	경주군	7. 15~8. 13
	경주시	8. 16~8. 22
	경주군	8. 23~9. 7
	경주시	9. 8~9. 16
	경주군	9. 17~9. 27
	경주군	9. 29
인천·경기	광주군	2. 9~2. 25
	광주군	2. 26~3. 3
	광주군	3. 4~3. 10
	안성군	3. 11~3. 21
	안성군	3. 22~3. 26
	이천군	3. 28~4. 2
	이천군	4. 4~4. 12
	평택군	4. 13~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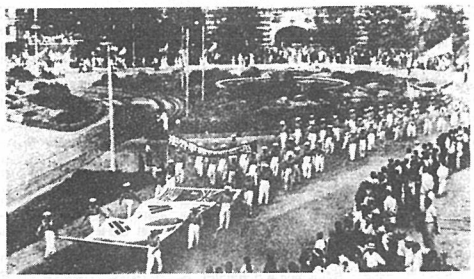
시도	주·시·군	검사기간
인천·경기	여주군	4. 21~4. 28
	광명시	4. 29~5. 2
	광명군	5. 3~5. 4
	부천남구	5. 6~5. 9
	부천중구	5. 10~5. 11
	남양주군	5. 12~5. 13
	양주군	5. 14~5. 20
	인천동구	5. 21~6. 1
	인천중구	6. 2~6. 8
	인천서구	6. 9~6. 10
	인천북구	6. 11~6. 17
	인천남동구	6. 18~6. 21
	인천남구	6. 22~6. 30
	파주시	7. 1
	연천군	7. 2~7. 11
	연천군	7. 12
	수원시	7. 13~7. 22
	용인군	8. 3~8. 6
	광주군	8. 8~8. 13
	백령, 대청	8. 16~8. 19
	양주군	2. 9~2. 15
	연천군	2. 12~2. 15
	남양주군	2. 16~2. 22
	구리시	2. 23~2. 24
	의정부시	2. 25~2. 27
	파주군	2. 29~3. 10
	가평군	3. 11~3. 15
	양평군	3. 16~3. 23
	포천군	3. 24~3. 30
	동두천시	3. 31~4. 6
	부천시	4. 7~4. 9
전남	구례군	2. 9~2. 13
	순천군	2. 15~2. 25
	순천시	2. 26~3. 2
	순천군	3. 3~3. 12
	곡성군	3. 14~3. 19
	담양군	3. 21~3. 29

시도	주·시·군	검사기간
전남	장성군	3. 30~4. 9
	영광군	4. 11~4. 22
	함평군	4. 25~5. 4
	무안군	5. 6~5. 14
	나주군	5. 16~5. 28
	영암군	5. 30~6. 10
	장흥군	6. 10~6. 18
	완주군	6. 20~6. 25
	완주서구	6. 27~7. 2
	완주북구	7. 4~7. 9
	완주관산구	7. 11~7. 16
	강진군	7. 18~8. 6
	보성군	8. 8~8. 20
	고흥군	8. 22~8. 24
	광양시	4. 6~4. 14
	광양읍, 율촌리	4. 15~4. 16
	여수시	4. 18~4. 25
	여천군	4. 26~5. 4
	여천시	5. 6~5. 7
	고흥군	5. 9~5. 28
	여천군	5. 30~6. 11
	해제진도군	6. 13~7. 2
	해제진도군	7. 4~7. 13
	신안군	7. 14~8. 10
	신안군	8. 11~8. 20
광주·전남	광주시	2. 9~2. 19
	광주시	2. 20~2. 29
	광주시	3. 2~3. 9
	광주시	3. 10~3. 23
	광주시	3. 24~3. 29
	광주시	3. 30~4. 9
	광주시	4. 11~4. 18
	광주시	4. 19~4. 29
	담양군	5. 2~5. 9
	제천시	5. 10~5. 12
	제천시	5. 13~5. 21
	충주시	5. 24~5. 26
	보은군	5. 27~6. 4
	옥천군	2. 9~2. 19
	영동군	2. 20~2. 22
	진천군	2. 23~2. 29
	괴산군	3. 1~3. 9
	음성군	3. 10~3. 17
	단양군	3. 18~4. 2
	남원시	4. 4~4. 6
	남원군	4. 7~4. 14
	순창군	4. 15~4. 27
	무주군	4. 28~5. 3
	임실군	5. 4~5. 16
	김제군	5. 17~6. 2
	김제시	6. 3~6. 18
	정읍시	6. 20~6. 23
	군산시	6. 24~6. 30
	임실군	7. 1~7. 8
	정읍군	7. 9~7. 22
	부안군	8. 3~8. 19
	장수군	8. 20~8. 30
제주	서귀포시	8. 23~8. 26
	북제주군	8. 27~8. 29
	제주시	9. 5~9. 12
	북제주군	9. 13~9. 24

시도	주·시·군	검사기간
충남	천원군	6. 10~6. 18
	천안시	6. 20~6. 23
	보령군	6. 25~7. 5
	대전시	7. 6~7. 7
	당진군	7. 9~7. 22
	당진군	7. 23~7. 28
	홍성군	8. 29~9. 7
	서천군	9. 9~9. 19
	청양군	9. 20~9. 30
충북	남천군	2. 9~2. 22
	보은군	2. 23~3. 2
	이리시	3. 3~3. 9
	순창군	3. 10~3. 17
	고창군	3. 18~4. 2
	남원시	4. 4~4. 6
	옥구군	4. 7~4. 14
	완주군	4. 15~4. 27
	무주군	4. 28~5. 3
	임실군	5. 4~5. 16
	김제군	5. 17~6. 2
	김제시	6. 3~6. 18
	정읍시	6. 20~6. 23
	군산시	6. 24~6. 30
	임실군	7. 1~7. 8
	정읍군	7. 9~7. 22
	부안군	8. 3~8. 19
	장수군	8. 20~8. 30
제주	서귀포시	8. 23~8. 26
	북제주군	8. 27~8. 29
	제주시	9. 5~9. 12
	북제주군	9. 13~9. 24

병무상담은 각지방병무청 (국번) 3911로

식민지시대 민족



◀1945년 12월19일 임정요인들의 귀국을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의 뿌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사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현 연구수준에서 그 뿌리를 다루는 것은 성급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임시정부」에 대한 왜곡된 견해,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민족해방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는 수정되어져야만 한다。이번 특집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양뿌리인 임시정부와 사회주의 그룹의 민족해방운동과의 연계성을 다룬다。이번 기획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론의 허와 실」 「일제하 민족연합전선과 사회주의운동진영」의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만주지역의 무장항쟁이 미약하게 언급됨은 전적으로 편집자 준비 미숙에 있다。 <편집자>

1. 들어가는 말

최근 입각에서 일고있는 「왈어버린 상고사」에 대한 뜨거운 공방전은 교과서 개편안으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집중적인 시각조정이 매우 조용하게 수행되었다。또한 소위 자칭 「재야사가」들과 상업언론들이 찬란했던 만주땅의 영화에 도취되어 있을 때 민정당과 정부 측에서는 현대사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그 근거는 현금의 한일사태 격증의 8.15이후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계급투쟁적 시각에 원인이있기때문이라는 것이었다。같은 맥락에서 「한국민중사 사건」이 일어났고 문교부·문공부등의 관계부처와 국사편찬위원회·정신문화연구원등이 동원되어 이데올로기 공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사및 현대사에 대한 시술을 추진하게 되었다。한편 작년에 개정된 헌법 전문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하 임정이라 줄임) 의 「입법정」 계승이 천명되었다。

언뜻 보기에 상호부관하고무관서하게 여겨지는 일련의 제시·건들이 최근 몇년사이 집중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사실은 일정한 방향성과 계기성을 지니면서 전개되어왔다。특히 현대사에 대한 전면적인 관주도하의 서술작업과 임정법통성론의 헌법전문에로의반영은 우리를 당혹과 의심의 구덩텀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왜?그리고 무슨 근거에서임정 입법 정통성론이 헌법에 반영되고 있는가?역사적으로볼때 최초로 임정법통성론을 주장한 것은 해방직후 친일지주와 매판자본가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던 한민당이었다。물론 임정자신에 의해서도 법통성이 주장되었으나 한민당과 이승만은 해방직후의 진보적 변혁운동에 대한 보수우익블럭을 유지 강화하기위한 목적으로「임정봉대론」을 내걸었다。

즉 정치 도덕적 정당성이나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던 이들이 임정의 노선이 인적·조직적으로 해방직후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계승되어 왔는가? 또는 정권적 차원에서 이를 얼마나 계승할 의지를 갖고있는가? 하는 세가지 점들이 우리의 논의구조 속에 포함필수 있다。

단 첫째 문제와 세번째 문제는 지면상, 그리고 상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한다。(:세번째 문제와 관련해 김구·장준하 선생의 최후는 임정의 건강성·운동성의 귀결점을 상식적 차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구체적으로 ①3·1운동의결과로 성립된 상해임정은 민족해방운동의 총영도기관이며 ②임정의 「민주공화제」 이념은1948년 제헌된 헌법에 반영되며 ③ 1940년초반에는 광복군을 결성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점으로 논리적 근거가 요약될수 있을 것이다。

이제 논의를 위의 세가지 점을 중심으로 전개시켜 보자。여기서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것은 운동의 선험적 무오류성·정통성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 부여된 과제및 주·객관적 정세속에서 임정이 수행한 일부와 역할, 결점과 오류를 타 운동집단과의 비교속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임정

임시정부는 주지하다시피 1919년 4월 상해에서 조직된이래 1945년 8월15일 이후까지 존속되어왔다。그중 상해시대 임정의 활동은 1940년대 중경시대 때 오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약체성은 ①정부의위치가 상해라는것 ②상해를 정부의 위치로 정한 근거가 외교를 통한 독립청원을 목적한 때문이었다는것 ③만주지역의 많은 무장독립단체들과 연합하지 못한것이 그 주된 요인이었다。

이 세가지 요인들은 서로 복합된 것이었고 결국에는 교민들과 독립투사들의 존재에 근거하여 무장투쟁노선을 주장한 노령의 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1923년 국민대표자회의이후 상해임정은 유명무실한 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즉 임정을 상해에 두자고 주장한 사람들은 상해가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외교교섭을통한 독립청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독립청원론자들은 대개 서구식 시민사상과 의식속에서 교육받고 생활한 사람들로서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을 통해서 민족자결이나 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파리강화회의—워싱턴회의로이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재분할회의에 대한 기대는 이미 3·1운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대답이에 그 환상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청원과 탄원으로 제국주의의 감고한 폭력적 식민통치를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따라서 잠정적으로 상해임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무장독립론자들과 독립청원론자들의 노선대립은 첨예화되었고 이러한 대립점들은 1923년에 개최되고 민족해방운동에서의 총 지도기관이 될 이 「유일당」을 통해 민족해방을 쟁취하겠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은 몇차례 회의끝에 당의 조직방법, 사업목표등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3. 1930년대~해방까지 민족해방운동과 임정

약화된 임정은 1930년대에 들어 와서도 별다르게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었다。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된 이후 임정은 자신의 간판을 유지한채 국민당을 따라 일본군으로부터 안전한 남경·항주 (1932) —가흥 (1935) —진강 (1937) —장사 (1937) —광동 (1938) —유주 (1938) —기강현 (1939) 으로 유랑하다가 1940년 내륙의 중경에 겨우 안착하였다。

이기간동안 임정은 윤봉길 우려한 것이었다。

이제 임정은 국우 복벽주의자들과 분파주의자들 뿐아니라 좌익민족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일본군에서 탈출한 징용학병등의 집결으로 되어갔다。

또한 이시기에 이르면 임정의 노선 또한 일정하게 변화하게 되었다。그것은 1941년에 발표된 임정의 「건국강령」과 좌익의 민족혁명당이 임정과 합작하게된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건국강령은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초하여 토지국유제 및 대생산기관국유화등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원칙은 임정의 제5차 개정임시약헌(1944)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즉 좌파일반을 배척하던 상해시대이래의 노선이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일반적 조류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사회민주주의적 색채를 지니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정만이 민해운에서 최상급의 찬사를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임정의 노선은 배제한채 삼해시절 임정의 노선과 임정의 정통성 (민족해방운동의 최고지도부라는), 중경시절의 투쟁성 (광복군 활동) 만을 강조하여왔다。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애써 외면해온 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있다。특히 광복군 활동에 대해서는 그 투쟁성과 실천적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광복군은 1941년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조」에따라 국민당의 고용군대가 되는 댓가로 재정적 원조를 얻었다。

잠전지휘권은 해방직전까지 대부분 국민당에 예속되어있었고 「12명의 장교」로 창군된 광복군의 과반수는 장교들이었고 그들 중 대다수는 중국인 장교들이었다。또한 실전에 배치되어본 경험을 가진 군인이라고는 버마전선에 투입된 8명이 고작이었고 그나마 태평선전·방송공작 대원으로 종사하였을 뿐이다。이들외에 전쟁말기에 미국 첩보기관인 오.에스.에스에 참가한 학병출신 광복군 90여명이 존재하였지만 이들 역시 연합군의 이익을 위해 미군의 통제하에 훈련되었고 그나마 훈련도중 해방을 맞았을 뿐이다。

1940년대에 강화된 중경의임정이 별다른 실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내부에서의 분파적 파벌싸움은 상해임정이래고 질화된 것이었다。당시 독습을 걸고 임정을 찾아갔던 장준하선생이나 화북독립동맹을 찾아 만리를 줄달음 친 김사량은임정에 실망을 금치 못했고 그이유는 임정의 명망에 비한 임정의 실제가 그들이 가슴 속에품어왔던 신성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다。그들은 1940년대의 임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셋집을 얻어 정부청사를 쓰고 있는 형편에 그 파는 의자보다도 많았다。』(돌베개)

그러나 여러가지 과오와 착오에도 불구하고 임정은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몇 안되는 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서 엄연히 민족해방운동에 복무하였고 그 이름은 조국해방을 염원하는 이들의 뇌리에, 가슴에깊이 뿌리박힌 것이었다。

4. 맺는말

이제결론을 정리해보자。실제로 임정이 그 어렵고 험난했던 세월속에서 꺼지지 않는 투쟁의 횃불을 높이들고 해방을 맞이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만 한다。일제의 총구와 개밥주의·패배주의의 절망을 비껴 청년의 기세가 노려한 백발로 바뀔때까지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것보다 임정의 문패를 부둥켜 안았던 김구의 정신도 한 소중한 유산이다。

이러한 임정이 민족 해방운동 선상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그것은 임정이 중요한 운동 단체의 하나로서 주장될 때만 가능하다。즉 임정의 활동이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질곡으로 작용한 부의미한 것이었다는 일부의 주장이 지녀진 감변에 불과한 것과 같이 임정을 민해운의 총영도기관 혹은 대표기관이었다고 평가하는 것 역시 왜곡된 견해라 할수있다。또한 덧붙일수 있는 것은 임정의 노선이 변화하여 중경시대에 이르면 내외 정세와 요구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는 좌우합작의 형태를 정치노선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근거해 볼때 우리는 임정이 정통성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해방직후 임정이 걸었던 반외세 반단정 민족통일 민족자주의 노선이 과연 현금에 제기되고 있는 임정법통성론의 핵심인가? 또는 임정법통성론을 주장하는 자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론의 허와실

정 한 식
〈근대사 연구가〉

임정은 국내민해운세력과의 연계부족, 독립청원론자등의 외교노선실패로 운동의 지도중심 역할못해

임정의 파벌싸움으로 광복군투쟁의 실천적 성과 못남겨

민족자주노선을 호도하는 현재 임정법통성 논의는 재고되어야

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현상은 임정의 정통성 강변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그러나 단정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임정의 주요세력이 남북협상등 반외세 반단정 통일정부 수립운동으로 질주하자 한민당과 이승만은 임정봉대론 대신에 반공과 유엔의 권위로 자신의 정당성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판 (再版) 임정봉대론」 내지 임정법통성론의 헌법전문에의 반영은 재고되어야한다。그것은 임정법통성론이 근거하고 있는 식민지시대운동에 대한 오도된 파장과 축소 내지는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통성 논의가 갖고있는 학문적 판단을 뛰어넘는 정치적 함의들이 있기때문이다。

논의를 임정법통성론의 논리적 근거를 검토해가는 방향으로 축소시켜 생각 해보자。먼저 임정법통성 또는 정통성론적 역사인식이 과연 타당한 역사인식 방법론인가? 광복군 활동과 함께 임정이 식민지하 민족해방운동(이하에서는 민해운이라 줄임)의 총영도기관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거라 할수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제의 폭력적 탄압과 민해운역량의 이념·조직적 한계로 실패한 후 민해운은 국내와 국외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국외에서의 운동은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주축으로 봉오동·청산리전투등 항일무장투쟁이 임정정도 수행되었다。임정수립운동은 크게 노령의 대한국민의회, 한성의임시정부, 상해의 임시정부로 대별되어 나타났고 이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3·1운동으로 폭발된 조선민중의 민족해방에의 열원과 그들의 정치적 진출을 일면 반영하였다。

이들의 통합원칙은 한성정부의 형식적 법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노령의 양 의회가 통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지만 실내용은 노령의 이동휘를 중심으로하는 공산주의 계열과 상해지역에서 안창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세력의 부분·일시적 연합적 성격이 농후하였다。통합과정에서 이들은 상해에 임정의 근거지를두고 헌법에서 복벽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채택하는 등 진보적 색채를 지니는데 합의하였다。또한 이들은 자신의 통치권이 전 조선인에게 적용된다고 자임하였고 여기에서 임정의 민해운에 대한 총영도기관으로서의 배타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민해운에서 상해임정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감조는 국내에서의 민해운에 대한 편견과 상대적 과소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3·1운동직후 국내에서의 상황은 민해운에 있어서 부르조아 민족주의 운동의 쇠퇴와 민족적 역량을 집결하여 민족독립의 구체적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3·1운동 이후의 최대 민족대표회의였다。이 회의는 임정 외교노선의 실패와 내부 분열에 근거한 임정의 위기를 해소하고 기존의 임정이 지녔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다。짤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외 백여개 지역에서 14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회의는 임정을 뒤러싼 참조파, 개조파, 임정고수파의 대립으로 결렬되고 말았다。논의의 쟁점은 임정의외교적 투항주의 노선을 극복하고 운동의 거점을 (무장투쟁에 적합한 노령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에 집중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 대립은 논의를 아무 결론없이 결국 종결시키고 말았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난 후 임정은 민족 해방운동단체의 대표적 집단이 가져야 할조직 사상 재정적 부기틀 삼십하고 내부적 분열과 외부적 압력에 의해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2차 개헌 (1925) 과 3차개헌 (1927) 을 거치면서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김구의 ·지도력이 재고되었으나 임정은 자기의 강령 노선을 제출하지 못하고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한 소분파로서 표류하고 있었다。

이같은 조건 위에서 러시아 혁명과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한 국민당 공산당의 반제 반군벌부정의 경험은 조선 민해운 대열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제기하였다。

즉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정을 배제하고 「당」 의 형식으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민족해방운동에서의 총 지도기관이 될 이 「유일당」을 통해 민족해방을 쟁취하겠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은 몇차례 회의끝에 당의 조직방법, 사업목표등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3. 1930년대~해방까지 민족해방운동과 임정

약화된 임정은 1930년대에 들어 와서도 별다르게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었다。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중국침략이 본격화된 이후 임정은 자신의 간판을 유지한채 국민당을 따라 일본군으로부터 안전한 남경·항주 (1932) —가흥 (1935) —진강 (1937) —장사 (1937) —광동 (1938) —유주 (1938) —기강현 (1939) 으로 유랑하다가 1940년 내륙의 중경에 겨우 안착하였다。

이기간동안 임정은 윤봉길 우려한 것이었다。

이제 임정은 국우 복벽주의자들과 분파주의자들 뿐아니라 좌익민족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일본군에서 탈출한 징용학병등의 집결으로 되어갔다。

또한 이시기에 이르면 임정의 노선 또한 일정하게 변화하게 되었다。그것은 1941년에 발표된 임정의 「건국강령」과 좌익의 민족혁명당이 임정과 합작하게된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건국강령은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초하여 토지국유제 및 대생산기관국유화등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원칙은 임정의 제5차 개정임시약헌(1944)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즉 좌파일반을 배척하던 상해시대이래의 노선이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일반적 조류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사회민주주의적 색채를 지니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정만이 민해운에서 최상급의 찬사를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임정의 노선은 배제한채 삼해시절 임정의 노선과 임정의 정통성 (민족해방운동의 최고지도부라는), 중경시절의 투쟁성 (광복군 활동) 만을 강조하여왔다。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애써 외면해온 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있다。특히 광복군 활동에 대해서는 그 투쟁성과 실천적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광복군은 1941년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조」에따라 국민당의 고용군대가 되는 댓가로 재정적 원조를 얻었다。

잠전지휘권은 해방직전까지 대부분 국민당에 예속되어있었고 「12명의 장교」로 창군된 광복군의 과반수는 장교들이었고 그들 중 대다수는 중국인 장교들이었다。또한 실전에 배치되어본 경험을 가진 군인이라고는 버마전선에 투입된 8명이 고작이었고 그나마 태평선전·방송공작 대원으로 종사하였을 뿐이다。이들외에 전쟁말기에 미국 첩보기관인 오.에스.에스에 참가한 학병출신 광복군 90여명이 존재하였지만 이들 역시 연합군의 이익을 위해 미군의 통제하에 훈련되었고 그나마 훈련도중 해방을 맞았을 뿐이다。

1940년대에 강화된 중경의임정이 별다른 실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내부에서의 분파적 파벌싸움은 상해임정이래고 질화된 것이었다。당시 독습을 걸고 임정을 찾아갔던 장준하선생이나 화북독립동맹을 찾아 만리를 줄달음 친 김사량은임정에 실망을 금치 못했고 그이유는 임정의 명망에 비한 임정의 실제가 그들이 가슴 속에품어왔던 신성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다。그들은 1940년대의 임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셋집을 얻어 정부청사를 쓰고 있는 형편에 그 파는 의자보다도 많았다。』(돌베개)

그러나 여러가지 과오와 착오에도 불구하고 임정은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몇 안되는 독립운동단체의 하나로서 엄연히 민족해방운동에 복무하였고 그 이름은 조국해방을 염원하는 이들의 뇌리에, 가슴에깊이 뿌리박힌 것이었다。

4. 맺는말

이제결론을 정리해보자。실제로 임정이 그 어렵고 험난했던 세월속에서 꺼지지 않는 투쟁의 횃불을 높이들고 해방을 맞이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만 한다。일제의 총구와 개밥주의·패배주의의 절망을 비껴 청년의 기세가 노려한 백발로 바뀔때까지 자신의 몸을 추스리는 것보다 임정의 문패를 부둥켜 안았던 김구의 정신도 한 소중한 유산이다。

이러한 임정이 민족 해방운동 선상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그것은 임정이 중요한 운동 단체의 하나로서 주장될 때만 가능하다。즉 임정의 활동이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질곡으로 작용한 부의미한 것이었다는 일부의 주장이 지녀진 감변에 불과한 것과 같이 임정을 민해운의 총영도기관 혹은 대표기관이었다고 평가하는 것 역시 왜곡된 견해라 할수있다。또한 덧붙일수 있는 것은 임정의 노선이 변화하여 중경시대에 이르면 내외 정세와 요구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는 좌우합작의 형태를 정치노선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근거해 볼때 우리는 임정이 정통성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해방직후 임정이 걸었던 반외세 반단정 민족통일 민족자주의 노선이 과연 현금에 제기되고 있는 임정법통성론의 핵심인가? 또는 임정법통성론을 주장하는 자들

2·30년대의 타협주의적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40년대의 임정은 조직적으로는 좌우합작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

한국독립당이 창설 (1940) 되고 한독당의 부장보위 여탑으로 구상되었던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민당의 승인하에 임정소속군대로 창군되었다 (1940. 4)。그리고 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에로의 편입을 통한 군대통합과 정부개조, 헌법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과의) 좌우합작이 이룩되었다。

물론 임정 내부 복벽주의자들과 극우분파주의자들의 반발이 존재하였지만 내외로부터의 압작요구를 이어상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또한 이시기 임정의 대열 정비와 무장역량 강화에는 일박한 중전에 대비해 조선에 대한 발언권과 지배력을 형사하고자 한 국민당의 지원이 상당부분 존재하였다。국민당정부는 조선의「임시정부」를 자신의 통제하에두기를 원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영향권하에 있는 조선민족운단체들을 임정 중심으로 묶어세력이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1940년대 초반 근거지를 이동함과 동시에 운동의 전면에서는 퇴작하였다。따라서 중국 국민당지배지구에서 임정의 권위는 재건되었고 임정을 중심으로한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이 모색되었다。

먼저 합당의 형식을 띠면서 대내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1930년대에 들어 중국관내 (산해관 이남, 즉 만주를제외한 중국) 를 근거지로한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은 일대전기를 맞게되었다。먼저 객관적 조건으로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일제와 동북아시아 민중들사이에 형성되었던 전선은 한국국경으로부터 일정하게 확북으로 이동하였다。따라서 「타도일본제국주의」를 위한목표로 조선과 중국 민중·민족해방투사들이 [illegible]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재고되었다。

주체적으로는 만주지역의 운동세력들의 일부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남하함으로써 중국관내에서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정세의 호름에 발맞추어 몇가지 주요한 과제가 설정되었다。그것은①자은차이를 극복한 반제민족통일전선의 결성②조중 연대및 상호원조③조직해방 부절의 최고협태로서 무장투쟁의 준비였다고 할수 있다。이러한 과제에 응답해서 조선의 민해운 세력은 운동의 통일·단결과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이는 동시에 그이전까지 민해운에 많은 해독을 끼친 외교론·준비론을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된다。

실제적으로 1930년대 (정확히는 1933~1938) 중국관내에서 조선인의 민해운은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1933. 11)—「조선민족혁명당」(1935. 7) 으로 이어지는 통일전선 조직에 의해 이끌어지게 되었다。당시 상해의 기존 세력들과 만주에서 밀려온 세력들은 임정의 지도력과 권위를 부정하고 있었으며 임정의 자칭 민해운의 최고영도기관이라는 상징으로는 이들을 중심한 중국관내 운동세력들의 통일단결을 방어해낼수 없었다。연락기관적 성격이었던 통일동맹단체들은 민족혁명당으로 통합되었고 김원봉·김두봉·최동오등이 중심축이 되어 중국관내에서운동세력의 통일전선은 거의완성이 되었다。

그러나 김구일파는 임정외법통성을 주장하는 한편 김원봉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문제삼아 이 통일전선운동에 참가하지않고 1935년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으나 세력은 보잘것이 없었다。

1938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민족혁명당에 존재하고있던 급진적 청년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의 직접적 항일무장투쟁을 주장하면서 민족혁명당을 탈당하였다。국민당 지구에 남아있던 나머지그룹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는 한편 국민당의 원조하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고 이는 조중연대와 무장군사노선이라는 과

「공동연구」 원고를 모읍니다

본보에서는 최근 학계 및 교내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제분야(사회과학·철학·역사학등)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정리의 원고를 모집합니다。자격은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며 반드시 2인이상 1개 연구팀을 전제로 합니다。관심있는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학생회관 309호 (Tel : 965—7048)

해방운동의 뿌리

김 대 웅
〈 도서출판논장 대표 〉

1. 머리글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으로 이어지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항일투쟁을 계승한 3·1운동은 모든 애국민중이 연합·결기한 반제민족해방운동이었다。그당시 운동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조선 민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대중이었다。일제하의 사회구성체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일제의 주요 착취 대상은 바로 농민이었다。농민층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 이외에도 토지조사사업등에 의한 토지약탈, 가혹한 소작료의 징수, 과도한 부역노동등 극심한 착취의 표적이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더불어 조선 농민은 이미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일제와 봉건전의 전투를 수행했던 위대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3·1민족해방운동」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농민대중은 일본군의 무력탄압과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자 무장력으로써 관공서나 주재소를 습격하였다。또한 농민들은 일본인 토지회사, 친일지주들을 습격하고 응징했으며, 소작계약서를 소각하고 납세를 거부하기도 했다。즉 동학농민혁명의 전통을 이어받은 농민대중의 전투성은 3·1운동에서도 여실히 발휘되었던것이다。

이글에서는 이렇듯 농민대중을 축으로한 민족·민중연합운동의 성공과 실패, 그 노선을 재검토해보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진정으로 투쟁에 몸을 던진 자가 누구인가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 3·1운동 이후의 민족·민중연합

일제치하의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해방이다。계급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민족해방이라는 핵심문제에 통일되어진다。일제 식민지시대의 기본모순은 바로 제국주의 대 식민지 민중간의 모순이다。

노동자·자본가의 계급모순은 이미 제국주의 대 식민지 민중이라는 기본모순에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민중의 주요 범주는 농민이었다。압적으로 전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었을 뿐아니라, 일제 통치하에서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계급이었다。따라서 농민 대중은 반제 민족해방운동의 선봉에서 광범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주력군으로 역할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사회주의 운동이 농민 투쟁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인 것이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다른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에서 농민계급이 반제혁명의 주력군이었음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농민 투쟁을 무시한 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를 타도하였다。

노동자계급도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노동자계급은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동맹파업이나 전차파괴 그리고 광주폭파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제에 타격을 가했다。

한편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지식층은 운동을 주도하지 못하고 또 책임지지도 못했지만, 3·1운동을 발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이처럼 각계각층 애국민중이 연합결기한 경우는 3·1운동이 유일하다。식민지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민족연합전선의 구축이 반제혁명의 중심고리임을 3·1운동은 제시해 주고 있다。일제 식민지시대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계급의 주도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민족연합전선의 역량향으로 치달아 반제역량을 크게 축소시킨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그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범한 것이며, 우리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교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3·1운동이 제압리 사건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비록 좌절되었지만 민족해방운동의 진전에 중대한 디딤돌이었다。3·1운동 이후 전투적 민족의식으로 각성된 농민과 노동자들 기층대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력으로 진출했으며, 지구적이고 격렬한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또한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운동형태인 무장투쟁이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이들 무장독립군은 무만강 압록강을 넘나들며 일본군대와 경찰을 습격하곤했다。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당시의 항일무장투쟁은, 그 치열함이 높이 평가되지만, 대중투쟁과 결합하지 못한 외병투쟁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에 비해 시베리아및 간도지방에 대중적 근거지를 둔 이동휘 등의 무장투쟁은 진일보한 항일무장투쟁이었다。

한편 3·1운동이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운동 그룹이 출현하였다。3·1운동에서 노동자와 농민 대중의 전투적 역할을 지켜본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사상 학습을 위한 소그룹 중심으로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시대 사회주의운동은 지식층 중심의 소그룹운동으로 대중운동과결합하지 못한 채, 주도권 장악을 위한 파벌투쟁만이 격화되었던 것이다。대중운동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였다。

노동자계급도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노동자계급은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동맹파업이나 전차파괴 그리고 광주폭파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제에 타격을 가했다。

한편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지식층은 운동을 주도하지 못하고 또 책임지지도 못했지만, 3·1운동을 발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 식민지시대에 이처럼 각계각층 애국민중이 연합결기한 경우는 3·1운동이 유일하다。식민지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민족연합전선의 구축이 반제혁명의 중심고리임을 3·1운동은 제시해 주고 있다。일제 식민지시대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계급의 주도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민족연합전선의 역량향으로 치달아 반제역량을 크게 축소시킨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그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범한 것이며, 우리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교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3·1운동이 제압리 사건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비록 좌절되었지만 민족해방운동의 진전에 중대한 디딤돌이었다。3·1운동 이후 전투적 민족의식으로 각성된 농민과 노동자들 기층대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력으로 진출했으며, 지구적이고 격렬한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또한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운동형태인 무장투쟁이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이들 무장독립군은 무만강 압록강을 넘나들며 일본군대와 경찰을 습격하곤했다。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당시의 항일무장투쟁은, 그 치열함이 높이 평가되지만, 대중투쟁과 결합하지 못한 외병투쟁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이에 비해 시베리아및 간도지방에 대중적 근거지를 둔 이동휘 등의 무장투쟁은 진일보한 항일무장투쟁이었다。

한편 3·1운동이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운동 그룹이 출현하였다。3·1운동에서 노동자와 농민 대중의 전투적 역할을 지켜본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사상 학습을 위한 소그룹 중심으로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시대 사회주의운동은 지식층 중심의 소그룹운동으로 대중운동과결합하지 못한 채, 주도권 장악을 위한 파벌투쟁만이 격화되었던 것이다。대중운동을 조직하기 보다는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기에 급급한 심포비대중적이요 비주체적인 경향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3·1운동을 계기로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층 대중운동의 압적 절적 비약기를 맞이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기에 이르렀다。사회주의운동 그룹은 민족해방운동에 크게 기여했지만, 반제 단일전선을 구축하는 데 오히려 역작용을했던 측면도 있었다。

3. 임시정부와 사회주의진영

조선민중의 민족독립의 요구와 반일투쟁이 확산되면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임시정부는 미국에서 독립협회활동을 하면서 주로 미국에 대한 독립호소및 위임통치청원이라는 「외교론」의 주창자 이승만 애국계몽사상의 대표적 인물로 「실력양성론」 또는 「준비론」의 안창호등 개량주의적, 기회주의적 명망가들의 망명집단에 불과하다。

임시정부의 활동은 주로 외교활동에 머물러 대중운동과는 전혀 무관했으며, 대중으로부터 아무런 지지와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했다。결국 고질적인 분파투쟁에 휘말려 내부 암투만 거듭했을 뿐이었다。

한편 임시정부의 무장투쟁도 중국 장개석 정부의 지원하에 일본요인 암살등 일회성이 불과한 데러에 머물렀으며 아무런 대중운동도 조직할 수 없었다。

아울러 임시정부는 민족해방운동의 큰흐름과는 발맞추지 아무런 정통성과 지지를 받지 못한채, 사회주의자들과 뒤얽혀 끝없는 파벌투쟁만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그리하여 임정은 몇가지 계각층을 총망라한 것이었으며 29년말 현재, 지회수가 137개 회원수 3만9천여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단일 전선이었다。

이렇듯 결집된 대중 역량은 일제식민지 통치세력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바, 갑산 화전민촌 발화사건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각지역 농민투쟁지원사업과 언론탄압 규탄대회 특히 27년 언론통제로인해 보도조차안된 5만여 애국학생들이 참여한 광주학생운동을 적극지원하여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등 감격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신간회 내부조직을 살펴보면 중앙본부는 인텔리 출신 애국인사, 사회주의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부의 경우 사회주의자들이「노동자 계급의 주도권」만을 강조하는 경도된 관념에 빠져 미처 관심조차 쏟지 못했던 각 지역 농민대중의 참여가 두드러짐으로써 전체 회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2. 신간회 해산

이와 같은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간회 조직내부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우익인사들의 동요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좌파세력의교조주의적인 속성에 의한 통일적인 지도의 부재, 일제에 의한 차별적 탄압과 분열책동은 신간회 쇠속과 발전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됐다。 더우기 인근 중국대륙의 경우, 올바른 정세분석에 기초한 지구적인 농민혁명노선을 부정하는 이입삼의 도시봉기노선이 기세를 떨치고 있었던바 국내 사회주의운동세력에 이러한 극좌 모험주의 성향이 집합케 됨으로써 신간회 해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케된다。

담시 사회주의 운동의 사대주의적이며 기계론적인 교조주의는 농민을 주축으로 한 피압박 근로대중의 혁명적 역동성을 잠재움으로써 민족해방 투쟁역량을 위축시켰으며, 더나아가 해방이후 박헌영 그룹의 교조주의, 극좌모험주의 노선을 태동케 하는 뿌리가 되었다。우리는 당시 코민테른 「12월테제」를 통해 극좌편향의 한단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일제하 민족연합전선과 사회주의 운동진영

사회주의 운동은 비대중적·극좌적 성격과 코민테른 노선의 비주체적인 경향으로 민족연합 전선 구축에 실패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에 대해 정력적인 투쟁을 수행해야 하며 민족주의자의 불철저와 무유부단을 일본 제국주의와 대지주에 대한 투쟁에서 폭로해야만 한다。

과격한 언사로 은폐된 민족주의자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모든 방법을 고함, 연구해야만 한다.」

한편 신간회운동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활발하게 전개됐던 농민대중의 치열한 투쟁은 참으로 가열찬 것이었다。

압태도 소작쟁의의 경우,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혹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한 친일지주에 대항하는 가운데 일본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10여명의 소작인회 간부들이 연행되기도 했다。결국 이 싸움은 독포에서의 대대적인 시위운동으로까지 번져 구속자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고 소작료가 인하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함경도 명천 농민투쟁의 경우, 일제 파쇼적 탄압이 극심을 부린던 34년부터 전개되었다。34년 봄 명천 농민들은「기아 반대」투쟁의 을모건하에 고리대 착취와 소작료 박탈에 반대하여 친일 지주의 살인적 착취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 일경주재소와 면사무소 악질지주들을 습격하여 소작계약서 등을 불태우기도 했다。35년과 36년에 이르러 명천 농민투쟁은 더욱 가열되었다。농민들은 낫, 도끼, 삽 등을 들고 일제에 맞서 싸우는 등 대중봉기로 발전하여 계엄대, 연락대등을 만들어 강력한 방어조직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촌을 근거지로 한 가열찬 항일투쟁은 동학농민혁명의 맥을 이어가는 한편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해외 무장투쟁의 맹아적 기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5. 해외에서의 민족연합 전선운동

①중국 본토의 경우

중국본토에서의 항일독립운동노선은 반제 민주혁명을이루기 위해 손문이 내세운 「연소용공 농공원조」의 기치아래 진행된 국공합작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김원봉·최창익을 중심으로 중국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은 민족통일전선 형성에 주력하는바 그 결실로써 민족유일당으로서의「민족혁명당」이탄생하고「조선의용대」가 결성케 된다。

이 부대는 중국공산당의 홍군과 함께 화북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된다。한편 중국혁명의 대의를 배반한 장개석의 27년상해 쿠데타이후 김구등 상해임정인사들은 임정의 존속여부에만 급급한나머지,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던 장개석의 비호하에 지상과제인 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방해함으로써 항일 민족운동 진영 내부에 분열만을 초래했다。

2. 만주에서의 투쟁

갑오농민혁명투쟁 이후의 의병활동등 국내 무장투쟁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수탈을 피해 만주, 간도지방으로 이주한 농민대중을 기반으로한 해외무장투쟁으로 연결되었다。1920년 김좌진, 홍범도의 지휘하에 청산리싸움을 대승으로 이끈 항일독립군은 이후 사상적 조직적 통일을 이루지 못한채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30년대이르러서야「동북인민혁명군」(이후「동북항일 연군」으로 발전함) 의 기치하에 결집됐다。

이를 계기로 만주무장투쟁세력은군사적으론「동북항일연군」의 주력부대로서 부단히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정치적으론 애국세력의 대동단결 기치하에 통일전선의 형태로써 「재만한인조선광복회」를결성하여 부단히 국내진공을 시도하여 평북및 함북지역에 「지역공작위원회」를설치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6.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3·1대운동이후의 국내외 독립운동노선을 살펴보았다。결론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사의 성패를 가늠짓는 척도가 애국세력 대단결의 원칙하에 민족연합전선운동을 여하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느냐에 달려있음을 알수 있다。

3·1대운동이후 연합전선 형성기에 있어국내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코민테른 노선, 이입삼노선의 부비판적인 수용은 어렵게 형성된 민족연합전선의 맹아인 신간회 붕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당시 아직 광범하게 형성되지도 않은 노동자대중의 주도권 확립 (실제로는 사회주의 인텔리의 패권확보) 만을강조하다가 일제의 신간회 파괴책동에 놀아났던 좌파인사들의 범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과오임이 틀림없다。

중국혁명과정에서 극좌적인 이입삼노선 추종자들이 훗날대부분 장개석의 스파이로 변신하여 중국인중을 배신했던 쓰라린 교훈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음을 해방이후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신탁통치문제를 둘러싼 박헌영그룹의 사대주의적, 반민족적 태도와 이를 이용한 이승만일파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과정, 김구 여운형등 민족세력의 분열은 오늘날 변혁운동의 혼란상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 크다。극좌, 극우성향이 기세를 떨치는 작금의 상황은 이입삼노선, 박헌영노선이 다시금 부활하는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하 국내외 민족연합전선운동이 흡족치는 못하나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항일세력 대동단결의 원칙하에 구성됐던 신간회의 경우 그 상부조직은 차치하고라도 각 지부의 주축을 이뤘던 농민대중의 치일지주, 일제관헌에 대한 지상적이고도 가열한 투쟁은 특기해야할 것이다。또한 만주지역의 경우 항일 애국세력은 강고한 무장투쟁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농민대중, 애국인사를 포용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어느지역, 어느조직에도 찾아보기 힘든 군사적·정치적 통일조직을 건설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일제하 국내외 민족연합전선은 그 완결성은 미흡하나 신간회 각 지부 농민들의 투쟁이나 만주의 강고한 무장 투쟁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농민중심의 정치적·군사적 통일조직의 건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들의 대학

민족의 미래인 우리들의 대학
대학신문 기자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대학현실!
상아탑의 가슴 아픈 고백과 참회!
대학인의 하나됨을 위해 거름이 권하는 책
최영재 외 지음
크라운판/224면/2,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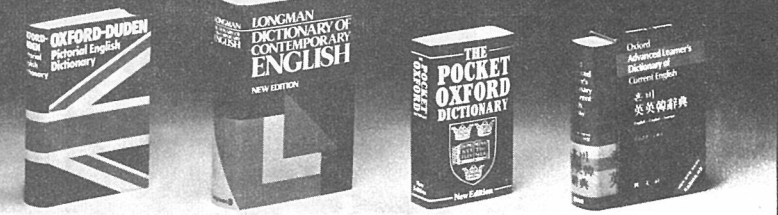
대학문에 서서
류병주 지음
₩1,500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이정훈 외 지음
₩3,500

기획출판 겨울
TEL.736-6882
738-7957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0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제
• 엄격한 학사관리
• TESL(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 담당
Placement Test매월 20일 부터 (1시, 2시, 3시) 3회
I CAN DO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英語는 英語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Oxford와 Longman은 여러분의 영어학습과 세계무대 진출의 확실하고 친절한 길잡이입니다.



Oxford Duden Pictorial English Dictionary
모든 영어사전을 완벽히 보완해 주는 도해(圖解)사전!
●일반 사전의 해설보는 명확하지 않는 이의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준다.
●가정과 직장생활 등 전형적인 일상생활의 장면을 위시해서, 과학, 기술, 예술 산업, 식물, 동물,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등 28,000개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색인을 수록하여 사용에 편리하다.
*값 13,000원

최신 수입원판 최고의 英語学習辞典
롱맨 現代英英辞典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총수록어휘 56,000여 • 예문·관용어 75,000여 • 최신 ! 대화·속어·대명사는 총수록 • 미국 기타 중요 영어권 국가의 어휘·발음 총수록 • 복합어·동사구·신조어 수록 • 엔사이클 단어의 취급법 전시 해설 • 문무한 16개주수.
※ 수입원판·별책부록 活用法가이드 포함
*값 14,500원
●학생보급판 값 11,500원

The Pocket Oxford Dictionary
—The 7th Edition—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믿을 수 있는 소사전
●49,000개의 단어와 관용어를 수록한 대형사전을 방불케하는 소사전이다.
●최소한의 약자와 기호로써 어휘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인용도의 중요성의 차례대로 단어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공통되고 있는 국제음성기호(IPA)를 사용했다.
*값 2,500원

영어정복의 지름길
홍비 옥스포어드 英英韓辭典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홍비 英英韓辭典」은 옥스포어드 大系 「英文社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진 기념으로, 영어에 다소 자신이 없는 분을 위해 「우리말 풀이」까지 곁들인 최고급의 사전입니다.
부록 (홍비) 英英韓辭典 活用法가이드
*값 9,500원

(株)汎文社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40 ●전화 : 732-5131·5132·5133

미군들의 무풍(無風)지대, 한반도

—폭행·강간·살인등 주한미군의 범법행위를 보며

임 재 홍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3학기〉

Ⅰ. 들어가는 말

1866년 제너럴 셔먼호사건으로부터 막이 오른 한·미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군의 모습을 띤 점령군으로써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형태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신식민지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대(對)사회주의 정책과 아시아 대륙 침략 발판의 기지, 그리고 자본시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전면전략→주변전략→전위전략으로 구체화되며, 80년 이후 일본의 위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세계전략의 동북아정책으서「한국을 대소 전진기지로, 일본을 후방기지로 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지원과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로 결정지워졌다。

이렇듯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가 결코 포기할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반대로 한반도 민중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제국주의적 수탈자로서 반드시 그들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민족민주적 국가를 확립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는 주된 대상이 되었다。따라서 미국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아울러 한반도 민중 제세력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억제하고 친미정권의 지속적인 수립 속에서 그들의 정책을 유지시키는 방편으로서 한반도내 미군 주둔을 존속시켜왔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43년, 미제의 신식민지화 43년동안 한국의 정치·군사적종속성은 경제적 종속및 이를 확보시켜주는 법제도,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함께 미군의 한국 주둔및 그 법적지위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무법자적인 횡포와이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한미군은 어떠한 존재인가

지난 3월10일 조지 슐츠 국무장관은 미(米)하원 세출위원회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주한미군 철수가능성에 대해『주한미군의 철수 시기를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미국의 결의가 확고하고 우리의 군사적 저지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에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아는 것』(조선일보 3월12일자)이라고 말했다。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오직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안정을 피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이다。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방위조약 제4조「미(米)육·해·공군의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의 한국 허용, 미국 수락」으로부터 그 법적근거를 갖기 시작한 미군의 한국 주둔은 그이전인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을 실시하는 동안 무려 7만여명이 주둔해 있었고 6·25 동란당시 36만, 닉슨 대통령시대에 2만, 그리고 현재는 약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43년을 한반도에 주둔해오고있는 주한미군들의 범법행위는 차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재의 부당함으로 인해 한국 민간인들의 피해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일로 지난 2월19일 포항시에서는 오후 11시경 술에 취한 미군 병사 30여명이「포항버스 소속 경북5아5881호 시내버스에 강제탑승, 횡포를 부려 버스 운전사 유상복씨가 중상을 입고 택시, 승용차와 연쇄충돌한 사건이 있었다。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미군들이 조사에 불응하자 소속부대에 안전귀가 조치(?)를 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미군의 한국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살인, 강도, 강간, 린치사건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빨래하던 여인을 강간한후 사살하고(57년), 17세 소녀를 도둑으로 몰아 사살한 일(58년), 열차내에서 한국 여인을 윤간한 사건(57년), 한국인 소녀가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수거하다가 사살당한 일(58년), 나체에 페인트칠을 하고(59년), 삭발(60년), 나뭇군 살해(62년), 행인에 대한 총격(63년), 자택강요 연금 린치사건(65년) 그리고 지난 86년 3월 충북 제천군 봉양면 봉양국민학교 여교사가 미군들에게 윤간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등 이있었다。

이렇게 미군들이 한국 민간인들에 대한 살인, 강간, 린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데에는 몇가지 원인을 살펴 볼수 있다。

그 첫번째로는 주한미군들의 의식수준 저급을 들 수 있는데, 주한 미군 병사들의 학력은 극히 낮아 문맹자가 태반이며 미국내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했거나 전과자가 상당수이다。들째로는 일반적 서구인들에게 뿌리깊이 박혀있는 백인 우월의식의 작용이 6·25당시 그야말로 잿더미였던 한국에 대한 원조국이었다는 점, 미국의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안정 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착각, 그리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혈맹으로서의 우호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감정이 맞물려 그들의 주둔을 당위로 인정하는경향을 들 수 있다。

한국 군인과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군이「미제의 용병」일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일개 병사가 한국 장교에게 명령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내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인이라고 할수 있다。미군들의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로서 일간신문에 미군들의 범법사건이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사건에 대한 시민의 신고가 있어도 묵인 내지는 소속군대에 귀가시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를 당한 한국인에게 전혀 법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외국군의 지위에관한 협정협정의 체결은 자국의 주권보장을 의미하며, 제2차 세계대전후 나토 당사국 일본 필리핀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은 협정협정을체결하여 미군범죄에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다。그러나 유독 한국만이 협정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형사적 제재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다만 유엔군및 미군의 지위에 관해서 전쟁중인 1950년 7월「주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관한 한·미협정」, 즉 대전협정이 있었을 뿐이다。

대전협정은『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해서 미국 군법회의가 배타적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는 미대사관의 서한을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서 성립된 일시적 조치인데 이는「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하에서 미국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것이 종전후 196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법적조건과 한국 정부의 예속성에 기인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강도, 강간등의 만행이 빈번하였고이렇게 수없이 발생되는 미군들의 횡포는 1966년「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형식상 법적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 자체가 한국 군의 월남파병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여론의 압력에 의한 요식행위로서 기존의 형태를 탈피하기 힘든 내용이다。

이 협정의 형사재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면「미합중국은 대한민국내에서 그 소속원에 대한 군사재판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한국도 미국에 대해 공무집행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인 형사재판권을 갖는다。미합중국 법만이 벌할 수 있는 범죄는 합중국이, 대한민국 법만이 벌할 수 있는 범죄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형사관할권을 갖는다」(협정 23조및 합의사록 3항에 대하여)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1차 재판권 행사가 특히 중요한 사건에한하고, 미국이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상호 협의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미국측에서「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측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하며, 한국측은 재판권 행사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묵인이 있었다고 한다。또한「합중국 군대 구성원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형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협정 23조 5항)는 규정에 있어서 미국의 구성원(군인)이 공무집행중이 아니었을시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재판부가 조사를 하되 이를 미국측 당국에 보고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처벌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를 법무부장관이 15일내에 서면으로 미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하는것으로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좁은 영역뿐이다。합의사록중「한국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결국 모든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주한미군들이 한국 민간인들에게 살인·강간·린치를 행하고도 별 탈(?)없이 지낼수 있는 것은「한·미 군사협정법」의 법조항 몇개 때문만은 아닐것이다。

주한미군사협관의 명령이 없이는 단 한명의 한국군도 이동시킬 수 없는 작전 지휘권의 미군 소유와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대미 종속성은「한미 군사협정법」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아니 할수 없다。주한미군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던 1955년 3월6일, 당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유우엔 총사령관에게 보낸 사고방지 요청서한은 한국민을 거리낌없이 민치하는 미군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니라 차라리 구걸이었다。『친애하는 협장군! 본인은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귀하께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요청하며…귀하의 깊은 배려를 바라나이다』

Ⅲ. 맺는말

1980년 광주항쟁이후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민족해방운동의 밑거름이되었고 80년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강원대 반미시위사건, 콘트롤데이타사건, 페이전 방한 반대투쟁으로 이어지고 근래의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은 반전 반핵반미투쟁으로 전면화,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식민지파시즘과 민중사이의 대립,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국가 대사회주의국가 사이의 긴장완화를 공통으로하지만 분단고정화와 군축 비핵지대화의 논리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국내—국제관계가 맞물리고있다。

미국은 86, 88을 통해 한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교차승인,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통해 분단고착화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계획없다』는 슐츠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미국내에서 삼당의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레이거노믹스의 환상속에서 급격히 불려 나갔던 군비는 부득이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따라서 해외 주둔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있는 터라 미군이 반드시 주둔해있지 않더라도 방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측면과 경제대국 일본에게 극동지역 방위를 전가시키겠다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어 주한미군 철수가 「계획없는 일」만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래도 그것이 곧 한반도의 자주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선거에서의 패배 KAL사건으로 국내적으로는 보수정권의 안정화, 분단안고정화의 쇄기가 박히고 민족민주세력은 군정종식, 탈이데올로기 및 민족화합 통일로가는 도정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미국빈민 점은이들의 안식처가 아니고, 한국 여성들이 더이상 미군들의 노리개 가 아니기 위해서는 일체의 대미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일체의 동등한 한·미관계는 민족해방 투쟁의 완결속에서만 이루어질수 있어

한국정부, 주한미군의 범법 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 못 취해

독자컬럼

자주적 인간상 구현의 장(場)

—학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 춘 재
〈정과·정외3〉

대학에 들어와서 올해로 두번째 후배들을 맞았다。후배들을 맞을 때마다 나 자신의 입학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감회를 갖게 된다。그것은 대학이 낭만 그 자체라고 여겨왔던 고교 시절의 생각에 대해 대학 3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던 과정이 새삼 떠오르기 때문이다。자신의 위치나 사고의 기준을 대학에서의 자율성속에서 정립해 나가야 하는데 대한인의 이상과 대학의 현실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재목을 양성하는 곳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본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곳이다。그러나 현재 대학의 모습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개인주의·출세주의가 판을 치고, 대학이 갖는 본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대학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시대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부여 받는 장(場) 이어야 한다。

이런 대학이 갖는 본래의 순수성을 계승하는곳이 각과(科)에 자리잡은 학회라 할 수 있다。학회는 각 과의 특수성을 전제로 인간의 사회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종성·교양교육 등 전체 토론이 행해지는 곳이다。

동일 학문을 연구하는 과 성원들의 동질적 연대감을 기초로 대학공도협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이라 할수있다。자유·정의·진리라는 대학의 이념아래 용기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 인간상을 구현해내는 것이 학회의 중심 역할인 것이다。학회는 활동인 구성원간의 학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 수련회를 통해 기존에 받아왔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진보적인 것에의 지향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상정립을 추구한다。

자율성과 사명감에 기초한 학회 주체적 참여로 당면문제 해결해야

학술활동의 주체로서 보편적 인식과 실천, 공동체 문화활성의 기수인 학회는 현재의 대학이 안고있는 모순점을 극복하고 역사의 왜곡과정에서 소멸해 가는 민족주체성을 회복시켜 대학문화와 나아가 민족 공동체 문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회는 진정한 자율성을 기초로하여 대학내의 모순점의 극복뿐 아니라 대학과 사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성찰해 보고 모순점 해결을 위한 주체적 참여의 장이라 할수있다。즉 학회는 대학인의 기본적 소속의 장이며 대학인 전체의 참여로서 이루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이런 학회가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속에서 후배들은 학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학회를 운영하는 선배들은 학회가 지녀야할 과원들의 이해 요구에 근접하는 대중성을 살리지 못한 가운데 학회 자체가 대중적 확산을 갖지 못했다。후배들은 선배들의 의식속에서 대상화되어가면서 학회 또는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한다。

그것은 학회가 대학내에 자리잡은 기간이 짧다는데에기인한다고 파악할 수도있다。따라서 학회의 위상을 정립하기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그것은 학회가 과활동에 있어서 단결의 구심체로서, 과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작업과 함께 대중적 확산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학회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바란다。

대학써클 순례씨리즈②

우리들의 "하모니"

기타의 서로다른 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갔다.

모든것이 낯설기만 한 대학생활의 시작이었다.
아직 캠퍼스의 낭만이란 단어조차 생소한 나에게
대학생활의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써클활동에서 찾아
보라고 권유했던 과선배 성수형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방문했던 고전기타반.
그리 넓지않은 써클룸에 가지런히 걸려있던 수십여대의
기타와 각종악보들은 고전기타반의 역력과 공연장면의
사진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던 헌우형의 멋진연주와 함께
호감이갔던 써클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첫 정기모임에서 "이번 학기는 예년보다 M.T를 빨리
가겠다. 특히 많은 신입생이 가입했으니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멋진 맥주파티를 개최하겠다"는 써클회장인
동근이형의 말에 요란했던 환호성과 박수소리 속에서
M.T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슴설레였던 나날들을 보내고
써클의 막내로 M.T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심에서 느낄수 없었던 맑은 공기의 상쾌함과 뜨거운
내가슴을 시원히 적셔주던 크라운 맥주를 가슴깊이
음미하며 기타의 서로다른 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갔다.
모두의 손에 들려있던 내 젊은가슴 만큼이나 부풀어 오른
하얀거품의 크라운 맥주로 힘찬 건배를 하며 주고 받던
따뜻한 미소속에 하나가된 우리들의 하모니는 젊음없이는
느낄수 없는 대학생활의 낭만이었다.
나도 이제는 대학써클 문화의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친구들에게 멋진 대학생활의 낭만을 자신
있게 전해주어야 겠다.
자,! 크라운 맥주와 함께 하나가된 우리들의
멋진 젊음을 위하여……건배.

K대학교 고전기타반 1학년 유 성 열

크라운맥주

분단극복과 통일문학 <2>

김 재 용
〈연세대 국문과 박사과정〉

분단기의 문학흐름과 민족문학

글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분단직전 한반도의 문학흐름
3. 한국전쟁후 문화의 이질화와 민중문화
4. 북한문화의 이해
   ①문화노선의 기본틀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②해방후 문화정책과 문화혁명
5. 분단극복을 위한 문화의 새로운 논의
6. 통일을 위한 문화, 예술운동의 위상

Ⅰ. 분단극복과 민족문학사적 전망

최근 삶의 제반 영역에서 그동안 내면화된 분단 이데올로기를 깨고 통일의 전망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의 건설에 힘차게 전진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은 이땅에 제국주의 세력이 침략한 후 줄곧 제기 되었던 반제 반봉건의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연속선 위에 놓여질수 있는 것으로, 이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때만이 우리 민족의 해방과 아울러 인간 해방도 성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인간 해방에 기여하는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문학 역시 예외가 될수없으며 오히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게 된다. 문학에 있어서 분단 극복과 아울러 통일로의 전망을 구체적인 내용으로화하는 민족문학의 수립및 그것을 역사적으로 뒷받침 해줄수 있는 민족문학사의 정립은 현재 매우 중요한 관건임에틀림없다.

그러나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 양극화를 초극하고 통일의 전망을 문학측면으로 바라보는것은 여간 어려운 일의 아니며, 자칫 잘못 하면 관념적 수준에 그치기 쉬운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땅에 통일을 이루어야 할 주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민중들이기에 이 문제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성질의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민족 문학사의 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그리고 분단된문학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문학분야에 있어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밝히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해 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휴전협정 무렵의 예 판문점. 분단으로인해 문학은 앞을가로 들어섰으며, 이로인해 남북한의 문학은 현재까지 공통의 준거틀을 만들지 못하고있다.

엄밀히 실을 좇기 위해서는 그 실이 서로 꼬인 지점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시작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분단 극복과 통일된 민족문학사의 정립이라는 멀고도 중요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우선 남북한 문학이 서로 갈라지는 시기였던 8·15직후의 문학운동의 조직과 그들의 이념을 밝바탕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Ⅱ. 남한에서의 문학운동과 순수주의

8·15이후 남한에서는 자주적 민주국가의 수립이 최대의 과제로 부과되었지만 해방이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2차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의한 부산물이 됨으로써 여러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구나 해방직후 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에 따라 미군정이 남한에 들어서게 되었을때, 미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정책과 일체하에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을 받아오던 민중들의 새로운 요구사이에는 서로 엇갈린 주장이 대두 되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팽처럼 문학운동의 대체적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좌익측의 문학운동과 우익측의 그것은로 대별할수 있다. 우선 좌익측의 그것을 살펴보면, 일제하에서 문학운동을 주도하였던 카프를 공통적으로 이어받으면서 당시 문학운동의 이념에 따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과 「조선문화전설중앙협의회」로 나누어졌다.

「조선문화전설중앙협의회」는 임화, 김남천등이 주축이 된 단체로서 45년 8월18일에 창설돼 「문화전설」 잡지를 기관지로 내면서 당시의 변혁과제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설정, 그것에 걸맞는 문학운동의 이념을 민족문학론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일제하 1935년 해산된 카프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설야, 이기영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동맹이 아니라 연맹인 까닭은 예술연맹 산하에 미술동맹, 연극동맹, 영화동맹 등이 있다. 카프가 31년에 재조직될 때 동맹에서 연맹으로 바뀌어졌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술연맹으로 사용했다가)이 세워졌다. 1945년 9월 17일에 건설된 이 단체는 그 구성원이나 표방한 문학운동 이념에 따라 「조선문화전설중앙협의회」와는 명백하게 대립되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카프를 해석함에, 앞서 임화나 김남천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해소파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그들은 당시의 변혁과제를 「조선문화전설중앙협의회」와 동일하게 부르조아 민주주의 변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에 부합하는 문학예술운동의 이념은 민족문학론이 아닌 프로레타리아 문학론이라고 설정하였다. 흔히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은 그 당시 장안파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어 변혁과제를 프로레타리아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 문학운동이념을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상상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건파의 주장이었던 부르조아 민주주의 변혁은 「조선문화전설중앙협의회」의 민족문학론으로 이어진다고 하는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 두단체가 갈라서게되는 쟁점은 이예술로기의 한 양식인 문학예술이 지닌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생긴 차이로 말미암아 문학예술운동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프로예술연맹의 논자들이었던 한효, 윤기정, 이동규 등이 그들의 기관지「예술운동」에 발표했던 몇가지 글들을 통해 밝힌 주장을 인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의 공통된 입장은 예술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형태이기 때문에 결코 허식과 가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정치는 경우에따라 당파성을 초월하여 민족통일전선을 만들수 있고 인민전선을 구성할수도 있으나 예술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초계급적일수 없고 또한 초당파적일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지에 입각하여 조선문화전설중앙협의회 문학전설본부에서 내세운 민족문학이나 문학의 인민적 기초등이 허식이며 주체적인 문학운동과 계급의식의 형태로서의 예술의 본질성을 거부한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 양파는 모두 공통적으로 정치와는 다른 예술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정치에 있어 민족통일전선과 문화운동에 있어서의 민족통일전선의 차이를 인정했지만 예술 특히, 문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문화운동의 구체적인 관점, 특히 조직화와 대중화 문제에 있어 차이를 드러내었고, 이것이 각각 민족문학론과 프로레타리아 문학론이라는 상이한 문학운동이념으로 나타났다.

양편의 이런 이론적 대립은 1945년 12월에 이루어진 양단체 통합과 더불어 더이상 표면화되지않고 문화전설 중앙협의회의 이론이 1946년 2월에 열린 문학가대회를 기점으로 문학가동맹의 이념으로 넘어가 민족주의 민족문학론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에 부응하는 구체적 창간방법론 으로 진보적 리얼리즘이 성립되었다. 46년이후 문학가동맹에 소속된 비평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기되었던 이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은 임화 이외에 다른 젊은 작가들과 비평가 특히 김영석에 의해 지속된 논의를 가져왔다.

당시 문학운동의 쟁점은 크게 민족문학론과 프로레타리아 문학론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나 문학가 동맹이 내걸었던 민주주의 민족문학은 1948년 8월 단독 정부수립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외적 탄압과 규제에 걸려 더이상 전개될수 없게 되었고 우익측의 문학론에 차츰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익측의 문학조직과 그 이념을 살펴보면 박종화를 중심으로한 「중앙문화협회」(1945. 9. 18)가 확대되어「전조선문필가협회」로 1946년 3월에 바뀌게 되었다.

이 단체는 앞서 46년 2월에 설립된 문학가동맹에 맞서 세워졌던 것으로 그 이념에 있어서는 민족문학적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가동맹이 표방한 민족문학론처럼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946년 4월에 김동리, 조연현, 조지훈등이 주축이 된「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문학가 동맹측의 정치적 성격을 문학에서 제거하고 문학자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순수주의 문학론으로 기울어졌다.

이것은 순수시를 내세운 조지훈, 본령정계(本領正系)의문학을 주장한 김동리, 심리적인 문학론을 내세운 조연현의 주장들에 분명히 드러난다. 청년문학가협회가 중심이되어 48년 2월에는「전국문화단체연합회」가 결성되고 그이후 정부수립과 함께「한국문학가협회」로 탈바꿈하여 남한문학의 주도권을 쥐게되었다. 좌익문학을 분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고 6·25이후에는 반공의 중심이데올로기로 됨으로서 좌익작가들의작품 출판마저도 금기시하는 분단 고착화의 과정까지 나아갔고 이것이 요즈음까지 지속되어 최근에 이에대한 비판적 검토에대한 요구가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단독정부와 한국문학가 협회는 큰 친화력을 기지고 있었으며, 50년대부터는 8·15직후 좌익문학측과의 논쟁과정에서 요구되었던 긴장마저도 잃게 되어 서구편향주의 혹은 복고주의적 순수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Ⅲ. 북한에서의문학운동과 민족 문학의 위축

8·15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문학운동은 여러제약상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파편적 자료를 묶어 다소간의 윤곽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8·15직후 북한에 처음 세워진단체는「평양예술문화협회」이었으며 여기에는 일제하부터 심리묘사를 주로한 자의식적인 소설을발표해온 최명익이 중심이었다. 이 단체와 맞서 만들어진 것이「프로 예술동맹」이었으며 남쪽으로부터 올라온 문학가들이 그 주축이되어 당시의 재북작가와 더불어 「북조선예술총동맹」이라는 새로운조직을 46년 3월에 만들게 되었다. 당시의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와 거의 같은 무렵으로 사회체계가 사회주의로 차츰 자리잡아나가기시작했다.

이시기에 북한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을 극좌적 편향으로 규정하고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내세웠으며, 문학에서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주장했다. 그들은 「문화전선」「문학예술」등의 기관지를 통하여 활동했으며 서울에서 연차적으로 올라오는 문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문학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박헌영계의 남로당과 일정한 유대를 가졌던 문인들, 예컨대 임화, 이원조, 설정식 등을 6·25가 끝난 53년에 간첩으로 숙청시켜버림으로써 이들이 견지해오던 민족문학론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이 그 시야에서 가려져버렸다.

Ⅳ. 민족적 동질성회복을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15이후 남·북한에서 제기되었던 문학론들이 결정적으로 나누어지면서 분단고착화로 치달게된 것은 6·25가 끝난 53년에 이르러서다. 남한에서는 순수주의가 그 중심세력이 됨에 따라 민족문학론이 제거되었던 문제인식이 최석화되어버렸다.

이런 사정은 또다른 측면에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남로당 계열의 작가들이 대거숙청됨으서 일정한 민족문학사적 의미마저 축소되어버렸다. 이런 점에서 문학에있어 분단 극복을 통한 통일에의 전망은 이런 양극화된 상태를 지양하고 민족해방운동적인 입장에선 민족문학사를 수립하는 것으로 전진하는 것에 의해 가능할 수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지향적인 문학적 전망은 과거의 문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 즉, 오늘날 남·북한 양쪽 어디에서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일제시대 카프문학을 민족문학사적 전통위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작업과 떨어질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 극복의 민족문학은 그동안 갈라졌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착실한 작업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달성해야 할 통일국가의 문학적 전통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학을 민족문학사적 전통 위에 올려 세우는 것을 동시에 끌어 안는 것을 의미하게 될것이다.

우리시대 새로운 만화를 위하여

◇「만화광장」을 찾아서

인터뷰

『만화에 대한 시각적 변화와 만화가 대중매체로 자리를 잡음으로서 만화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깨지고 있어기쁩니다』 이항복씨 (만화광장·취재부기자) 는 최근 만화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말을 시작했다.

만화광장은 근간에 많은 상업만화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만화의 질적고양과 만화이론 정립작업을 통해 성인만화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념만화와 정치만화를 도입하여 그간 금기시돼온 정치의 비판,풍자를 시도함으로서 만화의 기본적 특성인 풍자와 비판정신을 살리는데 공헌을하고있다.

이씨는 최근의 성인만화에대해 『70년대 후반기에 넘리퍼진 벙기는식의 성인만화로 부터의 탈피가 현재에있어 중요한문제라 봅니다。벙기는 식의 성인만화가 늙고있는것은 만화를 1회적인 오락용으로 생각하고 그보다 중요한 현실을 풍자하는 만화의 기본 기능보다는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출판사에문제가있다고 봅니다』라며 성인만화의 질적발전의 필요성을말한다.

만화광장에서는 이런 문제보완을 위해 논문을 싣음으로써 성인만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이씨는 『만화의 이론화작업이 올바른 만화작업에 선행한다고 볼때 현재는 카툰(1단만화) 과 삽화의 구별이나 만화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만화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죠。또한 만화비평가의 절대부족과 평론집이 없는 것도 현실적인 당면과제입니다』라며 만화광장에 논문을 싣는 이유를 말한다.

논문과 함께 만화광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초의 이념만화인 「오, 한강」(허영만 작)을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오, 한강」이 특히 대학생층에게 많이 읽히고 있원회 (문공부 산하) 의 검열이 현재 비교적 완화돼 있지만 아직까지 소재선택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이런 연유로 만화가협회에서는 만화심의의 거부를 주장했으나 이에대한 문공부의 언급이 없는 실정이죠』라며 이같은 현상은 잡지뿐 아니라 단행본 만화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한다.

▲「만화가 스스로가 소재를 한정시키거나 제압다다」 소재빈곤으로 습작·모작이 빈번한 점도 문

〈이항복 만화광장·취재부기자〉

『단적인 예로 한일협정때나 7·4 남북공동성명때는 일본과 북한의 소재는 검열에 틈과하지 못한 예도 있음니다』라며 한국만화사의 아픈 모습이 이제는 심의과정의자율화로 진정한 우리사회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만화가의 의식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현 만화계의 소재가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만화가 스스로가 소재를 한계시키거나, 소재빈곤으로 습작·모작이 빈번한 점도 체질개선에 큰 문제로 지적할수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우선적으로 만화가의 의식향상을 위해 많은 학습과 체험이 필요하고 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작으로 그릴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라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지금도 실시하는 작가가늘어나고있으며 그작품이 독자로부터 좋은반응을 받는다고 밝힌다.

만화가의 의식향상을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씨는 앞으로 만화광장이 갖고있는 계획에대해 『외국만화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화선진국인 프랑스와 일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만화소재의 질적향상을 계획하고있죠』

계획의 실천못지않게 만화광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극복 또한 앞으로의 좋은만화 보급에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첫째로 대부분의 성인만화가 가지는 폭력과 성문제에서의 탈피와, 두번째로 상업성에 1차적으로 촛점을 맞추기보다는 리얼리즘 만화도입으로 저급한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씨가 언급한 「사회비판의 무기로써 만화」가 되기위해선 현재 산적한 과제의 해결노력과 더불어 만화광장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 본다。

<조기완기자>

한국만화사의 쓰라린 경험, 새로운 소재로서 극복해야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그 누구도 아니다 바로 나.
제이

접음이 가득한 나의 화장품 제이 레몬 탄생
세이와 함께 새롭게 탄생하다
또 나다 나.
한 걸음 더,
아름다움에 다가선다.
나의 젊음이 찾은
나의 아름다움
세이.

제이의 3대 피부기능 활성효과
●피부보습 : [illegible]
●피지분비조절 : [illegible]
●피부호흡 : [illegible]

제이의 3대 바란스 유지효과
[illegible]

AMORE
접음이 가득한 나의 화장품
제이 J

신제품

'88서울올림픽 공식화장품

중흥외대를 위한 묘책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2>

장기적 안목에서 홍보에 주력해야

문제많은 분할모집, 외대특성에 맞는형식필요

전·후기 분할모집 과연 만능인가

Ⅰ. 머리말

80년도 종합대로의 승격과 81년도에 전기입시전형을 실시한 이래 본교는 점차적인 성적하락과 외국어계열의 특성이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적절히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고득점자에 대한 장학금특혜제도가 85학년도에 폐지된 이후로는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이 더욱 하락되고 있는 추세다.

학교측도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 있으며 내년 89학년도 부터는 적절한 형태를 채택해 실시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실태다.

고득점자 유치를 위한 방안중의하나로 우수성적자에 대한 장학금혜택을 들 수 있으나 84학년도 까지의 예를 볼때 극소수의 고득점자만이 이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재학생중에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게되 불합리한 제도로서 평가됐으며 몇몇 고득점자만으로 전체학생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것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우수신입생 유치방안으로 제시될수 있는 전·후기 분할모집과 홍보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한다.

Ⅱ. 전·후기 분할모집

전·후기 분할모집은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고득점자들을 대학내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85년부터 실시하기 시작, 필자 많은 대학들이 이를 실시해왔으며 성과도 매우 큰것으로 평가돼 앞으로도 더욱 많은 대학들이 이 방안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교 기획조정처에서도 학생, 교수, 교직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주말쯤에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분할모집에 대한 전체회의를 반영시킬 계획에 있다.

이에, 현재 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할모집의 몇가지 형태를 바탕으로 본교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모집비율에 따른분류

전·후기 분할모집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크게 모집비율에 따른 분류와 분할모집실시범위에 따른 분류 2가지로 나눌수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기분할모집의 비율은 30%~50%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30%를후기에 모집하고 있으며 50%를 모집하는 대학은 흥익대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50%를 후기에 모집할 경우 전기입시전형에 탈락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학기회를 부여할수 있으나 분할모집에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7대3의 분할모집비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분할모집을 실시하고있는 대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중 두드러진것으로 고득점 후기전형입학자의 등록률 저조및 타대학 혹은 전기전형입학자에 비해 휴학·자퇴율이 높다는점을 들수있다.

H대의 경우 지난해 학력고사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 2백30여명정도가 후기전형에 합격했으나 이중 30%가 넘는 70명정도가 등록을 포기 했으며 특히 3백점이상 고득점자에대해 주어지는 장학금혜택 (입학금및 4년간 등록금면제, 매월 생활보조비지급) 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고득점자에 대한 장학금제도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입시전형에 실패한 학생들이 후기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한 진로결정과 적성등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합격한 후에 다시생각해 보겠다는 「선 합격, 후고려 (顧慮)」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살펴본 바와같이 고득점자 유치이후의 문제점 발생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후기입학전형으로 많은 성적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정도만 실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수있다.

2. 분할모집범위에 따른분류

분할모집방법중 그 범위설정에 따른 분류의 첫번째로 모든과에 대해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홍익대가 미술대를 제외한 모든과에 대해 전·후기 분할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후기지원학생의 적성에 따라 특별은 학과선택의 기회를 부여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과에 대한 분할모집이 본교와 같이 모집원이 30명 이하인 군소학과가 20개이상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7대3비율로 모집한다고 가정할 때 화란어과인도어과등등 모집정원이 20명인 학과의 경우에 6명을 후기에서 모집하게 된다. 이렇게 모집정원이 극히 적은 과에 대해서는 후기지원자의 지원율이 그리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이들 학과의 대부분이 특수어학과라는 점에 있어서도 고득점자의 지원은 예상하기 힘들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한양대에서는 모집인원이 1백명이상인 9개과에 한하여분할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한양대도 초기에는 서울캠퍼스 5대5, 안산캠퍼스 7대3으로 전·후기를 분할 모집했으나 위와같은 문제점이 있어 캠퍼스 구분없이 정원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것이다.

이를 본교에 적용시켜 모집정원이 80명이상인 학과에대해 실시한다고 할때 현재는 5개과에 불과하지만 전일제수업이 실시되고 야간강좌의 정원이 주간으로 합쳐지면 서울과 용인캠퍼스를 합쳐 15개학과가 80명 이상의 정원을 모집하게돼 보다 폭넓게 고득점자를 유치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학교측에서도 한때검토됐던 방안으로 지역캠퍼스별 분할모집을 들수 있다. 서울캠퍼스는 전기, 용인캠퍼스는 후기입시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대가 현재 서울, 충주캠퍼스간에 위의 방법으로 분할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방법을 실시할 경우 서울과 용인간의 학력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질감 해소로 이후 서울캠퍼스가 용인캠퍼스로 이전할 때에도 문제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용인캠퍼스에 우수성적자가 올수 있음은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 우려되고 있는 「캠퍼스의 이원화」가 더욱 공고히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다.

사실 전국대나 기타 제2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질감의 해소는 지역차이가 있는한은 쉽게 해결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외대의 분할모집

이와같이 그리 많지않은 예를 살펴볼때 본교의 특성에 맞는 형식을 추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고득점자의 유치, 학과내 경쟁심 유발을 통한 학습분위기 고양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득점자의 중도포기현상, 전·후기 입학자 사이의 갈등, 행정의 이중적 어려움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전·후기 분할모집실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입학성적이 매년 하락되고있는 본교의 경우, 타대학과 같이 우수신입생 유치가 아닌 일정수준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도 응급조치의 하나로 분할모집을 생각하지 않을수없는 형편이다. 교수중에서는「후기지향론」을 내세워 외대가다시 후기대학이 되야 살수 있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으나 그러한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수도있어 약간의 위험이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첫해인 89학년도에 본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후기분할모집의 형태는 모집정원이80명이상인 학과에 대해 7대3비율로 모집하는것이 가장 올바를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있으나 약2년정도 실시한뒤 분할모집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점차 그범위를 징원이 적은 학과까지 넓혀가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집정원이 30명이하인 과는 분할모집의실시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정원전체를 전기나 후기에서 모두 모집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분할모집을 위해서는 전일제 수업을 통한 야간강좌와 주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하며 행정적으로도 2배의 인원이 필요하게 됨에따라 교직원확보도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교과과정에있어서도 그에맞는 수정이 요구되고 고득점자 유치에따른 장학금제도도 수정되어져야 하며 학교측은 이러한 모든면들에대한 치밀한 준비를 급년안에 모두 마련해야 할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획조정처의 설문조사결과와 학교측의 집중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 본교특성에 적절한 형태가 취해져야 할것이다.

Ⅲ. 홍보정책의 문제점

성균관대도 지난 80년 본교와 같이 후기에서 전기로 변경하였다. 당시 성균관대와 본교를 굳이 비교한다면 외대는 1.5배였으나 성대는 그 다음위치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그 위치가 크게 변해 성대는 계속 상승세에 있는반면 본교는 하락세에 있다고 볼수있다. 88학년도의 성대합격선은 87년보다 상승했는데 이기지에는 홍보정책에 흠뻑을 기울였던것이 가장큰 이유가 될수 있다.

현재 홍보정책에 선두를달리고 있는 대학으로는 중앙대와 성대를 들 수있다. 이들 학교는 홍보팀을 6~7명으로구성해 프로젝트보서 연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각 홍보관, 홍보물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입시기간동안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본교는 작년까지 홍보부장과 소수의 직원이 이를 맡한왔으며 학교측도 홍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타 대학들이 대학입시전문지를 통해 계속적인 홍보를 해온 반면에 외대에 대한 홍보는 거의 전무했으며 소수의 본교재작책자만을 배포하는 소극적 활동을 벌어왔다.

임종규 신입 홍보과장은 『금년 부터는 개교기념일과 그 밖의 어려가지행사를 통해 언어학분야만이 아닌 지역연구에 대한 특성,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등에 대해 적극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매체를 통해서도 적극홍보하겠다』고 말한다.

전·후기 분할모집을 통한 고득점자의 유치와 장학금 혜택을 이용한 방법도 물론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거시적으로 볼때 이러한 쇼크요법은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는 없다.

각 대학의 선진홍보팀과 교류와 프로젝트등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계속돼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시행되야 뒤늦은 걸음이나마 시작될 수 있으리라 본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지적받아왔던 「질적하락」에 신입생들의 입학성적하락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을 보더라도 고득점자의 유치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육의 「질 (質)」이 입학생의 성적에만 국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수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이우수한 성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아니다.

신입 박필수 총장이 취임소견에서 밝혔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학후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이를 뒷바침해줄수 있는교육환경이라고 할수있다.

학력고사의 성적이 그 학생의 앞길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 능력의 정도를 말해 주는 것임을 안다면 약간의 입학성적하락에 절적하락이란 표현을 쓰는 것도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없다.

『60·70년대와 비교해 교수진은 하나도 바뀐것이 없는데 학생들이 교수진을 탓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하는 모 교수의 말에는 책임회피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란 학생의 학구욕, 학교측의 기존교육정책 답보등을 지적한 것이다.

명문외대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한 과도기인 지금 우수신입생의 유치가 급선무라면 입시제도의 합리적변환, 대외 홍보정책의 적극적인 실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재단의 과감한 투자가 일치되어야만이 실현될수 있을 것이다.

〈기획부〉

글 싣는 차례

Ⅰ. 시리즈를 시작하며
Ⅱ.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안
Ⅲ.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진단한다
Ⅳ. 용인캠퍼스·제2캠퍼스인가 분교인가
 1. 행정체제 격상 및 개선되야할 복지문제
 2. 제2캠퍼스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몇가지 방법
Ⅴ. 고전(古典)이된 커리큘럼 전면적 수정을 요한다
Ⅵ. 교수·강사진유치와 이를위한 복지개선

「독자의소리」 원고모집

도서관에서의 물건분실, 교직원과의 마찰, 학생들간의 외견대립……。

외대다는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공동체속에서 겪고 느끼는 문제점들이나 미담 (美談) 을 본보에서는 「독자의 소리」 난을 신설하여 제483호 신문 (3월8일자)부터 게재하고 있읍니다.

매수 제한없이, 되도록 짧은 글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보낼곳 : 외대학보 학생기자실—서울 : 학생회관309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추후 독자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독자의소리 투고함도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되는데로 공고를 통해 알려드리겠읍니다)

독자의소리

서점·매점문제

간이매점 절실해

학생회관이 계속적인 우리의 요구로 뒤늦게나마 완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서점및 문구점이 학생회관으로 이전하여 수업시간을 몇분앞두고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할 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적이 종종있다. 또한, 사회대, 문리대에서는 서점은 물론, 매점도 전무한 상태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쩐대나 학생회관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나는 각 건물끼리의 거리가 상당히 먼것을 감안해, 각 건물마다 간이매점이라도 설치해서 간단한 잡화나 문구류를 판매했으면 하는 방안을 학교측에 제시하는 바이다.

<서문·노어2 이숙전>

미네르바동산

의자등손봐야할점많아

학교가 좁다보니 조그만 것에도 많은 애정이 가는듯 하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좀 고쳐주었으면 하기에 이란을 이용한다. 다름이 아니라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동산에 대해서다. 가뜩이나 쉴 마땅한 곳이없는 서울캠퍼스에서 그나마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미네르바동산이 요즘은 너무나 피폐화된듯하다.

뿌리가 뛰어나와 걸려넘어지기 일수고 휴지가 널려있는등 불결하며 의자시설 역시 앉아있기에 불편하기 짝이없다. 더구나 밤이면 미네르바동산에 올라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둡다.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하면 보다많은 학생들이 미네르바동산을 찾을 것이다. 그전에 학교측에서 보수공사를 통해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친근한 미네르바로 꾸며 주었으면한다.

<서양·이태리어2 서영숙>

「습득물 보관소」

한곳으로 지정해야

며칠전에 학생증을 분실한 일이 있었다. 걱정을 하던중 한 친구가 사회대 안내실에서 학생증을 보았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어문학관 이나 교양학관 안내실에 가보라고 하였다.

결국, 여기저기를 수소문해 교양학관 안내실에서 학생증을 찾기는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나의 부주의에 있지만 자신의 신분증이 남의 손에 의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할때 기분좋은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컨대 분실물이 신속히 제 주인의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공식적인 「습득물 보관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당분간은 보관소의 위치를 한 장소로 지정, 설치하는 기술적배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2 박건구>

교통문제 심각

공사 빨리 마무리되길

나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인데 매일 아침 학교앞 도로공사때문에 애를 먹는다.

아무리 일찍 집에서 나와도 지각을 하기 일쑤이다. 언제부터 시작한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개강이후 3주가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나라 교통사정이 아무리 나쁘다지만 침탈리에서 우리학교까지 40분이나 걸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가능한 빨리 도로공사를 마무리지어, 차들이 휘경동 4거리에서부터 곽막현 10분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 기현상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교문앞 횡단보도의 흑이 좁아 본의 아니게 횡단보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점도 시정되었면 한다.

<동양·마인어2 이명윤>

밤길의 사람들
6월 항쟁, 강제징집, 철거민 문제, 분단문제 등 바로 우리 당대의 현장에서 쓰여진 문제중편선
■ 박태순 '밤길의 사람들'
■ 이광직 '틈'
■ 이원하 '이기 고이 잠들다'
■ 전진우 '하얀 항쟁'
■ 정도상 '한국는 일리 있어도'
■ 조선희 '퇴적층'
全일간지에서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책!
전국판/300면/값 3,500원
풀빛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가 176-87 (우편번호 120-) (363) 6972 (363) 5995

김남일장편소설
青年日記
10·26, 12·12, 5·17……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젊은이들의 피묻은 일기장!
"한대일기는 그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회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 테두리 YMA 건에서 5·17에 이르는 정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일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있었던 1987년도 당대를 살아낸 젊은이들의 고통스런 성장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아픔, 다짐, 좌절, 절망, 이 삶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들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들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공약 및 프로필

<기호 1> 이 수 한 (서양·서어 4) ▲67년생 서울 영등고졸
김 형 진 (동양·태국어 4) ▲65년생 서울 배재고졸

"단결의 목마름으로 민중시대의 불꽃으로 그대 부활하라! 민주총학이여!"

—학생회 간부에대한 소환·파면권을 모든 외대인에게
—총 취업 대책위원회 건설
—서울·용인의 통틀한 자격, 캠퍼스자치에 기초한 공동대표제 실시
—모의 UN총회 부활및 세민제의 올바른 위상구현
—민중의 당과 일치단결 민중시대 앞당기자

<기호 2> 함 칠 성 (법·법학 4) ▲65년생 강원 사대부고졸
김 용 덕 (서양·영어 3) ▲64년생 울산 학성고졸

"피터져 솟아 오르는 자주의 함성으로 다시 일어서라! 애국 외대여!"

—총 대의원회 건설과 총 여학생회의 건설
—단과대 특성에 맞는 제반행사 활성화와 적극적지원
—복지위원회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기능강화
—소비조합건설과 협동조합체계준비
—통학버스의 증차, 배차시간의 단축화와 대 재단투쟁전개

<기호 3> 조 원 재 (서양·영어 3) ▲65년생 서울 북공업고졸
박 용 한 (서양·불어 4) ▲64년생 서울 영등포고졸

"해방된 한반도를 어머니의 품으로…"

—학민 정취 특별위원회 결성
—자치활동의 보장(학회연합결성)
—식당·자판기·서점의 협동조합화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전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학생위원회 건설

용 인 캠 퍼 스

<기호 1> 정형주(서문·독어 3)
▲64년생 서울 성동고졸
안 승 남(사회·경제 3)
▲65년생 서울 대광고졸
"자주의 불꽃으로! 민주의 바람으로! 어머니 대지에 통일의 깃발을!"
—황산인의 민주적 제권리 쟁취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의 독자성 보장과 유기적 결합추진
—학생회 활동의 공개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 전개

<기호 2> 장철수(서문·노어 4)
▲60년생 경남 마산고졸
황 기 원(서문·독어 4)
▲63년생 경북 안동고졸
"왕산의 신새벽을 몰고올 사람 그 누구인가, 장철수·황기원"
—써클 및 학회활동의 활성화
—운동권 제 정파간의 연합체결성
—총학 존직원의 공개채용 실시
—복지왕산 건설

87학년도 취업률 상향

상경대 무역학과 동양어대 태국어과 취업률 100%

학생처가 밝힌 87학년 졸업생 취업통계에서 전체 졸업자 3천6백72명중 64%인 2천3백66명이 취업되었고 군입대와 대학원진학자를 제외한 순수취업률은 86년의 39%에 비해 2%증가된 41%로 집계돼 작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84년의 78%에 비하면 14%를 밑도는 것으로 85년의 58%, 86년의 64%와 함께 심각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긴하나 전체 졸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 9백43명이 늘었음을 감안할때 64%의 취업률은 소폭이나마 취업자의 증가를 나타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87년 졸업생 취업현황을 각 단대별로 살펴보면 상경대 86%, 야간감좌 80%, 법과대 79%, 동양어대 74%, 정과대 72%, 서양어대 69%순이며 나머지 5개단대는 평균취업률인 64%에도 못 치치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취업률만을 살펴보면 상경대와 야간감좌가 63%로 최고를 나타냈고, 문리과대가 가장 낮은 19%를 보였다.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인 과는 상경대 무역학과와 동양어대 태국어과로서 100%이며, 순수취업률만 보았을때는 야간감좌 무역학과가 89%로 가장 높다.

그러나 사회대 경영정보학과 동양어문대 스와한리어과는 2월현재 10%미만의 순수취업률을 보이는등 저조한 상태를 나타냈다.

한편 사범대 독어교육과의 경우 순수취업률 12%, 전체취업률 26%로 순수, 전체취업률이 모두 낮은데 이에대해 사범대 독어교육과에서는 『교육계의 교원적체현상이 계속되고있고 일반 기업체 역시 사대, 독어전공자를 기피하고 있는것이 원인』이라 말한다.

캠퍼스별 취업률을 보면, 용인캠퍼스는 57%로 작년의 38%보다 18%, 서울캠퍼스는 71%로 작년의 59%보다 12%가 올라 양 캠퍼스 모두 취업률이 증가되었으나 순수취업률의 경우 용인캠퍼스 30%, 서울캠퍼스 47%로 아직은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있다.

87년도 취업양선 경로를 보면 순수취업자 1천4백90명중 개인별 취업이 5백40명, 공채가 6백23명, 학교추천이 3백27명임을 나타내 아직도 학교측의 취업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현 사회의 경제, 교육정책의 파행적 모순구조가 낳은 대졸실업자의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어학과 중심인 본교의 특성을 감안한 학교측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외부 관련부처, 동문회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적인 취업알선구조 확립등 학교당국의 절실한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권명희기자>

1987학년도 졸업예정자 취업통계

(88.2.26일 현재)

구분 / 대학	졸업예정자	무역제조제약	항공선박수산조선	증권금융보험	국영기업	광고방송언론	외국연구사회단체	호텔관광레저스	건설	기타개인사업	10대그룹회사	계	취업	%	진학	기타	군입대	계	%	미취업	취업알선 학교	공채	개인
서양어	671	114	14	15	12	4	11	5		24	72	271	40	101	80	14	466	69	205	63	150	58
동양어	415	83	13	13	8	6	7	4	1	13	32	180	43	82	29	15	306	74	109	53	55	72
법 정	175	12	5	16	4					2	16	55	31	37	16	20	128	73	47	6	42	7
상 경	158	30	2	34	1	2	4	1			26	100	63	18	6	12	136	86	22	37	59	4
사 범	149	27	3	3	14	3	2	2		4		58	39	7		4	69	46	80	7	26	25
야간감좌	431	69	8	72	69	4	14	3		19	15	273	63	28	35	10	346	80	85	17	59	197
문리과	113	1	1	1	1					15	3	22	19	34	3	12	71	63	42	4	5	13
어 문	662	90	16	10	3	4	2	11	2	82	10	230	35	63	24	29	346	52	316	60	103	67
사회과학	898	109	20	17	5	4	2	13	2	103	26	301	34	109	39	49	498	55	400	80	124	97
합 계	3,672	535	82	181	117	27	42	39	5	262	200	1,490	41	479	232	165	2,366	64	1,306	327	623	540

「구국왕산 특별위원회」발족

용·성지역 민중생존권쟁취특위도

「미국의 정치경제 침략저지및 학살원흉 부정집권 노태우 처단을 위한 구국왕산 특별위원회」(이하 왕산특위) 발족식이 지난 15일(화) 오후 3시 어문학관앞 해방광장에서 열렸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왕산특위 위원장 구본엽군 (서문·영어·휴학) 은 성명서를 통해 『암울한 조국의 현실속에서 민족적 역사적 과제인 조국의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는 발족취지를 밝히고 『미국의 침략적 본질과 군부독재의 타도에 전 민주세력이 대동단결, 대동투쟁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학생들은 군부독재와 미제국주의의 화형식을 가진 뒤 경찰과 대치, 「노태우처단」「수입개방 결사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30분동안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해산했다.

한편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 산하 「학살원흉 노태우처단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용인·성남지역 특별위원회」(이하 용·성특위) 발족식이 지난 17일(목) 오후3시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이날 집회는 본교생 1백50여명을 포함한 용인·성남지역 대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탄압규탄발표, 용·성특위 발족선언문, 화형식등의 순으로 약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민중 생존권쟁취 결의대회

"작금의 노조파괴는 정권의 공작"

고(故)박영진 열사 분신 1주기 맞이해 「민중생존권쟁취 청년학도결의대회」가 지난 3월 17일(목) 오후2시30분 삼민광장에서 개최되었다.

5백여명의 학생이 모인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초청연사로 나온 송광영 열사 어머니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경기교통 김남수씨가 분신으로 독재권력에 항거하는등 민주노동세력에 대한 탄압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더이상 나와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이룰때까지 함께 싸워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각 투쟁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된후 박순봉군(서양·서반아어 4)은 공동투쟁선언문을 통해『노태우독재정권은 7·8월투쟁이후 결성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위해 위장폐업·노조간부해고등 자본가의 횡포를 간접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미국과 매판독재정권의 민중운동탄압은 모든 민중의 단결된 투쟁으로만 분쇄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4시경 집회를 마친 2백여명의 학생들은 노동열사분향소에 분향을 한후 「노동운동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민중이 주도하여 노동탄압 분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1시간동안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총동문회장배 테니스 대회

총동문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3월12일(토) 교직원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추개조로 나뉘어 벌어진 이날 대회의 우승·준우승팀단은 다음과 같다.

▲A조우승 : 남용택교수 (무역과), 이임구교수(중국어과) 준우승 : 안병만교수(행정학과) 오시근교수 (불어과)

▲B조 우승 : 우덕룡 교수 (서반아어), 김명수교수 (행정학과)준우승 : 임영상교수(사학과), 김중환교수 (전산과)

서양어대 독어과 사진전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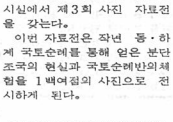
「세기전환기의 예술」작품 사진전이 3월21일(월) 부터 25일(금) 까지 대학원 1층로비에서 독일어과와 오지리도서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사진전은 「할·틀의 원터」(winter) 등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비인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의 작품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국토 순례반 사진자료전 개최

서울캠퍼스 국토순례반에서는 3월23일(수) 부터 26일(토) 까지 학생회관 1층전시실에서 제3회 사진 자료전을 갖는다.

이번 자료전은 작년 동·하계 국토순례를 통해 얻은 분단조국의 현실과 국토순례반의체험을 1백여점의 사진으로 전시하게 된다.



〈 서울캠퍼스 〉

▲부산 내성고 : 3월23일(수) 오후4시 왕산·이문연합 등문회 이문동 상징탑 회비 4천원.

▲영흥고 : 3월23일(수) 오후5시 도서관 1층 회비 : 4천원.

▲숭의고 : 3월24일(목) 오후5시 상징탑

▲영일고 : 3월25일(금)분수대 오후5시30분 회비 : 3천원

▲용산·수도고 : 3월25일(금)상징탑 오후5시 회비 : 3천원

알 림

본보, 4단만화 「외고집군」이 이번호부터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애독과 성원부탁드립니다.

〈 용인캠퍼스 〉

▲덕진 성은고 : 3월 23일(수)교양학관 휴게실 오후5시30분

▲대백고 : 3월23일 (수) 어문대다방 오후5시

▲서초고 : 3월24일(목) 학생회관 휴게실 오후5시30분 회비 : 1만원 (신입생제외)

▲영등포고 : 3월25일(금) 학생회관 휴게실 오후5시30분

▲중앙고 : 3월26일(토) 청량리광장 롯데리아 오전11시

▲중경고 : 3월28일(월) 학생회관식당 오후5시30분

〈 영화상영안내 〉

◇서울 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 (2309호)

▲3월22일 (화) : 오후1시 「벤허」 오후5시 「프레쉬 댄스」 ▲3월23일 (수) : 오후1시 「닥터 지바고」 오후5시「더 웰」 ▲3월24일 (목) : 오후1시 「닥터 지바고」 오후5시「더 웰」 ▲3월25일 (금) : 오후1시 「벤허」 오후5시 「프레쉬댄스」

◇용인 캠퍼스

—어문대 영사실 (1412호)

▲3월22일 (화) : 오후1시30분「백 투 더 퓨처」 ▲3월24일(목) : 오후1시30분「씨발이」 ▲3월25일(금) : 오후1시30분 「벤 플라워」 ▲3월28일 (월) : 오후1시30분 「더 체이스」

〈 타대학행사 〉

▲이화여대 : 제22회 신입생환영 M·T전 (Educational-Technology Exhibition)

주최 : 이화여대 사범대교육공학과

그래픽·사진전 : 3월21일~26일 장소 : 경영관 홀. 방송시네마 : 3월22일·23일 오후5시 장소 : 교육관202호

부정선거 후유증

○…바야흐로 선거열풍이 사방에서 이문벌과 왕산골을 감타했건만 홍산들 정신은 딴곳에 있는듯.

두세사람의 후보추천서에 싸인을 하는가 하면, 지연혈연 끝만 닿으면 묶어세우려는 득표전략에 얽혀 마냥 고개를 끄덕일뿐 유세장은 썰렁하기만.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하지 않는 홍산들의 모습은 혹시 지난 대통령선거이후의 「선거불신풍조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못한것 아닌지.

○…대머리를 빙자한 준조세수납, 토지강제매입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육체(?)를 보존해 「피는 못속인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요즘.

7년동안 가리고 가려졌던 구린내나는 이야기들이 하루에 한가지씩 벗겨지는이유는 6공화국의 기만적인 공작정치의 고도화된 술수라는 후문.

막후의 「파워게임」에 불쌍한 아무만 등터진 새우꼴이 된것인지는 몰라도, 이땅의 민초들은 해외도피 운운보다도 「지구밖으로 떠 내보내」을 더 원한다는 것, 대머리는 명심하시압.

○…미네르바에서 군사훈련을받던R.O.T.C.생도들과 산책을 하던 홍산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는데.

사연인즉, 해마다 이맘때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충성」소리야 버것한 인사치레인지라 별 반응없었지만 생소한 군가소리마저 미네르바를 떠들석하게하니 홍산들 외대의 작전지역화(?)를 우려했던 것.

R.O.T.C로 입단하는날부터 준 군인이라고 하는데 신성한 학교가 군사훈련소가 아닌 이상 군인의 군사교육은 군대에 가서 받아야 함이 당연.

○…그동안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인상 문제에 냉담하던 학교측이, 정의신교가 있자마자 들연 대부분의 조합에 가입을 해와.

허나 복지·인사·근로조건에 관한조합원협합의를 하면서도정작 중요한 「임금인상」「근로기준법준수」의 조합만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역시 협상의 기만성을 드러내.

나팔라라 하던 학교측의 태도가 정의 신고직후 돌변한 것도 우습지만 협상태도 아직도 불순해, 직원노조원여러분! 쇠몰도 단숨에 뽑으랬다고 이번에 싹 쓸어버립이…。

○…왕산골 시위도중 일부 마이 카 (My Car)족들의 물염치한 도피행각이 비일비재해 홍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시위도중 진입로쪽의 바리케이트로 인해 차의 운행이 불가피해지면 자가용으로 인도를 이용해 유유히 사라지는가 하면, 도로에 뿌려진 최루가스를 날려 민주홍산들이중상중으로 눈물을 흘려.

교통지옥의 왕산골이고 보면 자가용 운행하는 것 탓할일은 아니지만, 메운 최루가스에다 자동차냄리(?)까지 섞어가며 사라지는 「나하나 쫄삶면 그만」이라는 심보하도 괴씸해 이번엔 분부(憤憤)가ㅎ.

눈물의 의미(?)

"55분만 있읍니다"

쌍용의 김과장에게는
55분만 있읍니다.
그는 고객과의 약속을
언제나 5분 먼저
지키기 때문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우리네 사회생활———
언제부턴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틈새로부터
커다란 둑이 무너지듯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서부터
불신의 벽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있는 기업을 가꾸어 가는
쌍용의 시계에는
언제나 55분만 있읍니다.

SSANG YONG 쌍용

우리들의 땅

연재소설 「두번째」

정 세 진
〈서양·노어4〉

여러번의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아버지는 나에겐 자랑거리보다는 멍에로 작용했다

50년대 아버지 세대의 전쟁과 독재 그리고 부정은 사회주의 이상의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자들과 일제시대의 봉건세력, 그리고 민중의 삶과 고유한 한들이 한데 어우러져 넘겨진 유산이었다. 해방직전 그의 청년시대인 스무살때, 그는 필리핀과 말레이반도에서 일본 군모와 군복, 칼, 총을 소유하고 미국 군인들과 싸웠다. 그때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에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전장의 밀림에서 마치 제국주의 승리를 향한 모습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일본군과 함께 강하고 엄숙한 형태로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옆에 있는 일본 군인의 눈빛은 달라보였다. 어딘가 그의 나라에 있을 자기의 애인을 그리워하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 고등학교 시절에 이구(異口)의 문학을 강의하던 선생님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에 대한 감의를 생각하는듯 했다. 나는 전쟁의 주역이 뒤바뀐 듯한 느낌을 사진을 통해 역력히 받을 수 있었다. 전쟁은 인간의 거룩한 생명도 예술의 미도 파괴했다. 아버지는 말레이 반도에서 살아 남았다.

아시아인들이 살고있을 그땅에 나와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당했을 열대지역 주민과 미국군의 묘지가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아버지는 그후 자주 말하곤 하였다. 아버지의 세대는 너무도 알을한 세대였다. 아버지는 다시 총을 들었다.

이번의 전쟁터는 바로 아버지 세대의 방인 한반도였다. 반도의 우아한 남쪽문화의 정서가 흐르는 조국을 일본 제국주의의 총으로 사살하고, 살해된 동학농민의 신음 소리가 가시지 않고 배어있는 땅. 농민의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을 반도에서 아버지는 또다시 총을 메고 나갔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일본의 군복을 입고 그들의 총으로 전쟁을 하고, 그들의 사병이었던 당신은 동남아에서의 적군인 미국이 만들어준 군복과 장교 계급장을 달고 고구려 땅의 인민군과 싸우러 출병나갔던 것이다. 조국과 민족은 이 전쟁을 정당화 하였고 아버지는 낙동강에서 바로 그의 고향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얼마나 잔인한 방어를 했는지 그 사진은 잘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휘한 중대에서는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평행으로 걸려 있는 두장의 사진이 말없이 그 상황을 알게해 주었다.

부상으로 쓰러져있는적의 사진과 그 옆의 사진에는 시체가 된 적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었다. 싸울 능력도 없는 부상병의 사진을 먼저 찍고, 그후에는 사살해 버린 것이다. 고등학생도 채 안된 어린 소년이 쓰러져서 정면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한 사진은 그가 어머니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생명과 고향을 희구하는 인간 본연의 그 모습이 진실로 고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시체가 되어서 이제는 말이 없다.

왜 아버지는 그마저 죽였냐는가? 유년시절,청년시절, 나는 그 전쟁의 원인과 배경, 상황, 필연적인 전쟁의 역사성에 대해서 묻고자 한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이 무거운 죄악의 역사와 증오의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건 진정 나의 세월의 주제였다. 후퍼니즘. 그렇다.

회색 빛깔의 진한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열병의 첫 페이지에 구멍을 내어 줄로 메어둔 낙동강 전투때의 화랑 훈장이 승리의 전리품이라도 된듯이 안쪽으로 다시 곱게 접혀져 있고 페이지 마다에는 그가 죽인 북한군 병사의 시체를 찍은 사진들이 질서있게 꽂혀 있었다.

상부에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무엇가 유물처럼 남겨 놓고 인간의 마음 때문인가, 후세에 전해주기 위한 기록으로 그는 그런 사진들을 찍었는가? 아버지는 낙동강에서 바로 그의 더러움을 엄숙한 모습으로 그 땅위로 내려다 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빛꽃동산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런 경악의 목소리를 듣고 얼룩진 아버지 생각과 전쟁의 쓰라림에서 순간적인 해방감을 맞볼수 있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나요? 70년대의 그 마지막 해, 그 가을 어느 강연회에서 「예술의 시대」 써클에서 고등학생 문학회원을 대신하여 당신이 발표한 특후강을? 지금 그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당신은 러시아의 작가 고리키에 대해서 감상을 발표한 것으로 우는데…』 선경아, 그녀는 고등학교 시설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아, 이제 생각나는군요. 「새로운 사회의 이상과 문화의 역할」이라는 제목이었죠.

어렵풋하였지만, 이것을 꼭 발표해야할 어떤 의무감 같은 걸 느꼈죠. 당시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였는데, 왜냐하면 귀족과 일반 민중의 생활이 잘 그려져 있었기때문이죠.그나라는 세계사적인 혁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체홉의 1890년대의 작품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단히 강한 연민과 사랑이 있다는걸 느끼고 감동을 받았죠.

또한 그당시 러시아에 고리끼라는 작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는 새로운 이상 사회에 대한 갈망이 일었습니다.』 계속하면 이야기중에 아버지 생각이 불연듯 떠올라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야기했다.

『그러나 당시 나의 마음은 매우 불안한 충동에서 벗어날수 없었죠. 아버지는 러시아의 귀족처럼 대단한 부자였고, 가난한 나의 친구들은 나를 향해 들을 던졌었지요…이같은 일로 평등한 이상사회를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해 가을, 대통령이 저격되었고, 50년대의 아버지 세대는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나의 이상사회와는 관련없이 몇일 후에 무참히 짓밟혀 졌다.

다시터진 최루탄으로 내 눈은 또 다시 부어올랐다

만성 눈다락지

내게 있어서 눈다락지는 자주 걸려온 잔병중의 하나였다. 어려서 부터 머리카락이 눈을 찌를 만큼 자라기만 하면 어김없이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곤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심하게 붓고 흘러나온 고름으로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어렸을 적엔 어머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 간지러움을 참지 못해서 눈을 비벼댔고 그럴때 마다 눈꺼풀은 가라앉을줄을 몰랐다.

너석을 만난것은 재수시절의 D종합반에서 였다. 그런데 이 상하게도 너석과 함께 어울릴 적에는 나의 만성적인 눈위의 혹이 불편하게 나의 시각을 가리고는 했다.

참 재수가 없는놈이 있나보다. 나는 술이 약한편 이었지만 그녀석은 가끔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미친듯이 술을 마셔대곤 했었다.

『문학의 경우에 있어서 예술적 창조 행위는 자위(自慰) 행위에 지나지 않아, 삶의 본질적인 외미 부여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도출 되지 못한 하지. 하지만 예술적 창조 행위라는것은 남에게 동정을 구하는 자기 발산적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야』

내가 외대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때 그래서 너석에게 를스토이나 슈바이처 밥식의 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 했을때 너석은 이런 따위의 유식한 대답을 해버렸다.

열등심인지 몰라도 내눈엔 가시같은 존재였다.

눈이 부어 오르는 것은 겨울보다 여름쪽이 더욱 심했다. 특히 이번여름 농촌봉사활동시에는 논속에서 허리를 굽힐 때마다 눈을 찔러대는 모의 날카로움이 몹시 나를 괴롭혔다.봉사활동 도중에 만성적인 나의 눈이 다시 도진것은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계속되는 피곤함과 자신에 대한 게으름으로어김없이 왼쪽눈부터 부어 올랐다. 의과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간단한 진료행위 이외의 중노동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업기회는 또한 그만큼 적을수 밖에없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자신이할 수있는 만큼의 친절을 주민들에게 베풀었지만 주민과의 관계는 어딘지 함상 껄기는 구석이있었다.

하나 봉사활동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그놈의 눈두덩이가 항상문제를일으켰다.

내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을때는 입금인상등의 구호를건 노조운동이 한창이였던 8월이었다. 지난 6월에 전경이 만들어낸 최루가스에 몹시 고생을했던 나에게 있어서 8월의 가스냄새는 불쾌한것이었다.

개강까지의 시간적여유를 고려해서 너석에게 몇번의 전화를 걸었지만 너석은 언제나 부재중이었다.

너석의 행동이 혹시 T·V에서 연일 계속해서 보도하는 노조운동과 관련이 있을까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노조운동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였지만 내게도 어느정도의 체감으로 느껴졌다. 아버지가 있는 H중공업의 노조운동은 친절하고 점잖았던 아버지의 불평으로 어느정도 느낄수 있었다.

『무식한 놈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아버지의 불평이나 TV의 폭력화된 노조운동 때문에 나 역시 그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가 체질적으로 싫었다.

그러나 역시 이런식의 가치관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너석의 얼굴이 지금은 그리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였다.

『네녀석의 순수성은 참 부러울 정도야. 하지만 네녀석의 순수에는 투쟁성이 결여되어 있어』

최루탄으로 눈주위의 피부가 벌겋게 일어난 한달전에 본 너석의 첫말이었다.

늦여름의 폭염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봉사활동중에 부어오른 눈위의 혹이 시내에 자욱하게 깔린 최루탄 연기 때문에 좀처럼 가라앉아 주지를 않았다.

더우기 공단 근처에 위치한 집앞의 지하철 역은 최루냄새가 더욱 심했다.

9월부터 새로이시작되는 2학기에 대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리저리 책장을 넘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빠빠방』

저녁 무렵의 웃사람들이 만들어낸 최루탄에 나의 눈은 신경질적으로 반응 했다. 최루탄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급박한 줄달음질이 시작 되었다. 내앞 에서 튀부연 포탄을 입으키면서 터져버린 최루탄에 나는 눈을 뜰수가 없었다.

『제엔장, 빌어먹을』

나는 바람부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대며 최루까가 가셔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린눈앞에서 벌어진광경이 어슴푸레하게 눈물속을굴절해서 내눈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0여명의 전경들이 한 청년을 밟아대고 있는, 그런데 그 청년이 언젠가 왜소한 몸집에 반항적으로 미친듯이 술을 마셔대던 너석의 몸집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보였다.

『빠빠방』

내앞에서 다시한번 터진 최루탄 때문에 과민한 나의 눈이 쓰려옴을 느끼면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 앉을수밖에 없었다.

곰소에 그녀석에게 짤쓰던 『에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문장이 전경들을 향해 내입을 통해 투수히 뇌까려 졌다.또다시 눈두덩이가 부어오른다. 『눈다락지는 더러운 시대의 산물이야』라던 그놈의말이 불현듯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임 한 균
〈서문·독어 2〉

우리말의 쓰임새 (134) 양 탈

<그때 공연히 양탈을 하고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그L을 웃을 입혀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도향의 단편, 「벌을 안거든 우지나 말걸」 중에서>

양탈이란, ①시키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피를 부림 ②마땅히 해야 할것을 핑계를 대어 피함의 두가지 뜻이있다.

「양탈부리다」는 매우 양탈을 하다의 뜻이다.

위의 글귀에서 ①이 맞겠는가, ②가 맞겠는가 생각해보자.

신간소개

교육과 국가
—M 사립 지음
—이종태 옮김

이책은 종래 교육이 생존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었음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교육의 성격도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있다.

최근의 교육사회학적 주제의 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진보주의 교육과 훈련의 문제, 노동과정의 변화와 청소년 실업, 국가의 성격과 학교교육과의 관계등을 국가론적 시각에서 개괄하고 있다.

<한민사펴냄 값2,500원>

남로당연구Ⅱ, Ⅲ
—김남식 엮음

이책은 해방후 우리 민족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에서 변혁운동의 거대한 흐름이었던 남로당의 조직과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남로당연구Ⅱ」는 해방후 1947년까지의 남로당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고, 「남로당연구Ⅲ」에서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외사록,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 외사록등이 수록되어 있다.

<돌베개펴냄 각권값3,500원>

문화단신

수족관
—극단 현대극장 주최

주한 독일문화원이 주관하는 크리츠 페스티발의 일환으로 「수족관」을 대학로 극장에서 초청공연한다.

「수족관」은 산업사회의 모순을 두부부의 상황으로 압축시켜 그 갈등의 모습을 영상화한 작품으로, 노동자들의 고통과 자기상실, 소외현상을 그리고 있다.

▲공연날짜 : 3월23일—4월18일 ▲관람료 : 4,000원

채석강 파도

길 미 경
〈사범·한교 4〉

부서지리라
부서지리라
돌아올 때 까맣게
따라비 영겨붙은 바위에
오늘 베이고도 하얗게 부서지리라

기다림이란 제자리서 날 동동구르는 것이 아니라
되밀려나면서도 수없이 치솟는 확신으로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

그리하여
모난 너의 모습 둥글려주고
네가슴에 수없이 돋아난
울모의 칼 하여, 우리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다면
무디게 이름없이 부서져도 좋은 것

오늘, 밤이 땅 위에 선다는 날
눈은 차곡차곡 내리고
돌따라비 영겨붙은 바위에도
봄이 오는 길목에도
눈은 내리고

등 시린 손과 손 꼬옥 맞잡고
어기영차 해일로 부서지고 싶어라

人間·技術·未來

사원모집

未來社會의 주역이 될 人材를 찾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부 문	모 집 학 과	인 원
인문계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법학, 행정학 기타 인문사회계	○○○명
이공계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자계산학, 산업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2. 응시자격
가. 해당학과 1988년 9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나.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에 명함판 사진 부착)……2통
나.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1통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시 및 장소 개별 통지함)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럭키금성 트윈타워동관 럭키금성 인력관리위원회 전화 : 787－2060, 2062
나. 교부접수기간 : '88년 3월 25일(금)－4월 2일(토) 09:00～17:00(공휴일도 접수함)

6. 기 타
가.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부접수처에 문의 바람.

1988. 3.

모 집 해 당 회 사
■(주)럭키 ■(주)금성사 ■럭키금성상사(주)
■금성반도체(주) ■금성소프트웨어(주) ■금성부품(주)
■금성통신(주) ■금성전기(주) ■금성알프스전자(주)
■금성정밀(주) ■금성산전(주) ■금성개전(주)
■금성기전(주) ■금성하니웰(주) ■금성전선(주)
■한국광업제련(주) ■럭키소재(주) ■럭키개발(주)
■럭키증권(주) ■범한화재해상보험(주) ■희성산업(주)
■(주)에스·티·엠 ■럭키유화(주)

럭키금성
인력관리위원회